

碩士學位論文

# 中國風俗概觀

《中國風俗概觀》韓國語 翻譯 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 中 學 科

康 文 永

2008年 8月

# 中國風俗概觀

(《中國風俗概觀》韓國語 翻譯論文)

指導教授 金 中 燮

康 文 永

이 論文을 通譯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6月

康文永의 通譯大學院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成 植



委 員 宋 炫 宣



委 員 金 中 燮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8年 6月

## 論 文 摘 要

这部翻译文的原作《中国风俗概观》是在1994年杨存田教授编写而北京大学出版社出版的。这是一部为具有中等和中等以上汉语水平的外国人和留学生编写的教材。

这本描述外国人和留学生在中国生活中遇到的各种中国特有的习俗，尤其将到上世纪90年代的一千多年的风俗按照时代和情况来区分。

中国历史悠久，幅员辽阔，各地由各地的风俗，常言道“十里不同风，百里不同俗。”而我们从这一本书可以看到，一千年以来韩国和中国之间交流很频繁，而在这过程中两国的风俗习惯逐渐相似。

这篇论文是把《中国风俗概观》中的第八章婚嫁篇和第九章家庭家族篇翻译成韩文的。婚嫁篇介绍从封建时代的旧习俗到当代的新的习俗，而在这些习俗中的相当部分跟韩国差不多。它包括婚姻形式、择偶标准和途径、休妻、离婚、再婚、再嫁及媒俗等方面。就家庭家族篇而言，中国封建时代的封建家庭和当今时代的当代家庭都很有本国的特色，这些特色主要表现在家庭的职能和结构、封建家礼、家教与家产、家庭与家族的概念、族长与族规、家谱与宗祠以及当代家庭等方方面面。

有些习俗在韩国不存在，但大致上两国的风俗习惯有很大的相同。因此在翻译过程中的困难其实很少。虽然如此，但有些词汇，尤其家庭家族篇里的很多词汇，在概念上有不同的和模糊的地方，在翻译过程中特别注意选择了词汇。

最后，可惜的是由于这本书是在1990年代出版的，因此缺少在中国最近10年来发生的婚姻、家庭与家族方面的变化以及新的概念。

# 목 차

<b>제 8 장 혼인편</b> .....	<b>1</b>
一. 봉건혼인의 낡은 풍습 .....	2
二. 당대혼인의 새로운 풍습 .....	10
三. 배우자 선택 기준 .....	11
四. 배우자 선택 방법 .....	19
五. 휴처(休妻)와 이혼 .....	22
六. 재가와 재혼 .....	26
七. 중매인의 역할과 폐단 .....	29
<b>제 9 장 가정가족편</b> .....	<b>33</b>
一. 가정의 기능 .....	33
二. 가정의 구조 .....	35
三. 봉건가례(封建家禮) .....	36
四. 가정교육과 가산(家産) .....	42
五. 가문과 가풍 .....	48
六. 족장(族長)과 족규(族規) .....	49
七. 족보 와 종사(宗祠) .....	52
八. 가정과 가족관념 .....	55
九. 현대가정 .....	56

## 제 8 장 혼 인 편

혼인풍습은 민간결혼 풍습을 말한다. 이는 혼인의 개념, 형식, 배우자 선택의 기준과 방법, 이혼과 재혼 및 중매 풍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분야의 형성은 사회와 시대의 영향과 떨어질 수 없다.

중국의 오랜 봉건사회에서 혼인은 한 개인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사로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혼인의 주요 목적은 집안의 후손을 번성시키기 위함이다. 부모로서 아들에게 배필을 얻어주고 아들이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조상에 대한 도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해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곧 조상에게 불효를 하는 것이다. 이는 소위 말하는 “세 가지 불효 중 후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는 관념을 가장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여자의 부모 입장에서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집 사람이며, 부모는 단지 그녀를 키우고 적당한 짝을 찾아 결혼을 시켜주면 도리를 다했다고 여겨 그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옛말에 “시집 간 딸은 엮지른 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혼인하는 남녀 당사자는 대부분 결혼을 의무의 이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여자에게는 결혼이 생계를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혼사에 대해 대부분은 무조건 순종하고, 불만이 있어도 거역하지 못한다. 이렇듯 혼인의 결정권은 완전히 남녀 쌍방의 부모 손에 달려있으며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소개’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혼인 당사자들과 혼인결정권의 분리는 중국의 봉건혼인 풍습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혼인은 집안마다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농민, 수공업자 등 하층계급에게 결혼은 노동력 증가를 의미하며, 지주, 관료, 귀족들은 자식들의 혼인을 통해 자기 집안의 지위와 세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재산을 축적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위의 각종 혼인 관념을 기초로 다양한 혼인 형식이 형성되었다.

## 一. 봉건 혼인의 낡은 풍습

### 1. 매매혼(買賣婚)

매매혼은 남자측이 여자의 집안에 재물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을 말한다. 재물의 수량은 중매인의 조정 아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양쪽 집안 사이에 흥정이 오고간 뒤 결정이 된다. 사실상 남자측이 사는 측이며 여자측은 파는 측이다. 여자가 상품이 되며 중매인은 중간상인이며 재물의 가치는 곧 여자의 몸값을 말한다.

중국의 봉건사회에서는 노골적으로 여자의 가격을 정하고, 남자 측에서 그 가격만큼 돈을 내고 여자를 사서 아내로 삼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이는 사람들에게 아내를 샀다는 말을 듣는 것이 거북했고, 마치 남자 집안 혹은 남자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 집안에서도 딸을 판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태가 바뀐 매매혼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매매의 형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 구혼하는 형식인데, 예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자를 데려갈 수 없었다. “예물을 갖춰야 정식으로 부인을 맞이할 수 있다”<sup>1)</sup>와 “예물이 없으면 (부인과) 대면할 수 없다”<sup>2)</sup>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며 예물은 남녀 결혼 성사의 조건이다. 예물로 사용되는 금, 은 수량에 대해서 역대 봉건사회 일부에서는 명확한 규정까지 있었다. 원나라시대의 규정에는 귀족층은 금1냥, 은4냥, 일반 백성은 은3냥을 내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실제 금액은 규정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는 봉건왕조가 매매혼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예물의 상업성에 대해 원나라 정개부(鄭介夫)는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재물을 받는 자는 그 재물을 예물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격이었다.” “예물을 받을 때, 딸을 시집보내는 이들은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여자는 가축과 다를 바 없었다.”(《역대명신주의(歷代名臣奏議)》)

매매혼인은 애정과 혼인이 분리되어 있어서 결혼은 재물로써 결정되고 남녀 당사자 간의 애정은 상관없다. 물론 이런 경우 불행한건 여자이다. 남자 측에서 여자의 외모를 중시하여 고액의 예물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고, 여자의 부모가 재

1) <禮記, 內則>: 聘者爲妻, 奔者爲妾.

2) <禮記, 坊記>: 男女無媒不相交, 無幣不相見.

물을 지나치게 탐내 예물을 많이 보내오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의 나이, 건강상태, 정실(正室)부인이 유무를 막론하고 딸을 시집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자는 항상 희생물이었다.

## 2. 포판혼인(包辦婚姻)

포판혼은 혼인을 남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부모 혹은 윗사람들이 알아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봉건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결혼형식으로 부모가 결정하고 당사자는 부모의 결정에 복종하는 수밖에 없다. 《홍루몽》의 가보옥(賈寶玉)처럼 비록 임대옥(林黛玉)과 사랑하는 사이였으나, 가보옥의 어머니는 그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순전히 가족의 이익을 위해 아들을 설보채(薛寶釵)와 혼인시키기로 결정한다. 혼례식이 끝나고 신부머리 위에 씌워진 붉은천을 벗기고 나서야 보옥은 자신의 신부가 대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사례는 그야말로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

## 3. 근친혼(近親婚)

근친혼은 혈연관계가 아주 가까운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결혼은 봉건시대에도 빈번했다. 주요 원인은 첫째, 친족끼리 결혼하면 더욱 긴밀한 친족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본래 혈연관계인 남녀 두 집안에서 자녀들을 결혼시킴으로써 혈연관계의 기반 위에 다시 인척 관계가 더해지는 것이다. 둘째, 가족의 재산이 혈연관계의 사람에게 계승되고 외부 사람에게 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홍루몽》중에 가(賈)씨, 사(史)씨, 왕(王)씨, 설(薛)씨 네 가족은 대대로 서로 사돈을 맺어왔다. 가정(賈政)의 아내와 설보채의 어머니는 자매간이고 가정의 아들 가보옥은 또 설보채와 부부이며, 가정의 조카 가련(賈璉) 또한 가정 아내의 조카와 결혼했다. 이러한 다층적인 친인척 관계는 네 가족을 한데 묶어 흥망의 운명을 같이 하게 했다. 과거 부유층은 항상 이러한 근친 혼인을 이용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공고히 해나갔다. 반면 빈곤가정들이 근친혼을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혼수가 어느 정도인지 두 집안이 상의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근친혼 중 가장 많은 것은 사촌간의 결혼이다. 이는 오누이의 자녀가 서로 결

혼하는 것으로, 보통은 자매의 딸이 형제의 아들에게 시집가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당시 자매의 결혼에 대한 일종의 배상 혹은 상호 교환이다. 그 다음은 외사촌간의 결혼이다. 이는 언니의 자녀와 여동생의 자녀의 결혼을 말한다. 근친혼인도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역시 포판혼인에 속한다.

근친혼은 과학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지능이 낮은 경우가 많다. 최근 몇 십 년 사이 결혼규정에서는 직계 혈친과 3대 이내의 방계 혈친 결혼을 금지하였다. 이런 규정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철저히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일부 외진 산간지대나 소수민족 거주 지역은 특수한 원인으로 인하여 아직 엄격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

#### 4. 환친(換親)과 전친(轉親)

환친은 딸을 한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고, 그 시집간 집에서는 자신의 딸을 다시 상대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쌍의 결혼은 동시에 제기되고 동시에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혼인의 결정자는 말할 것도 없이 두 집안의 부모이다. 그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며느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신들의 딸을 시집보내는 것이다. 그 두 딸은 자신들이 희생양임을 알지만, 자기의 형제가 결혼하고 집안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 환친혼은 경우에 따라서는 둘 이상의 가정이 관련된다.

환친혼의 낮은 관습은 일부 낙후된 농촌에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대부분은 아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 병을 앓는 경우, 지능이 낮은 경우, 집안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경우 등 배우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부모는 딸을 대가로 며느리를 얻는다. 그러나 종종 그 결과는 아들 딸 모두가 불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며, 또한 한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면 곧 다른 부부에게로 갈등이 이어져 당사자 모두가 고통을 받는다.

전친혼은 환친과 다르다. 이는 한 집안내부에서 발생한다. 남자가 죽으면 그 부인은 남자의 형 혹은 동생과 결혼하여 부인이 된다. 고대에는 일반적으로 형이 죽은 후 형수는 동생에게 시집을 가고, 만약 동생이 이미 부인이 있으면 동생의 첩이 되어야 한다. 극소수 세대간의 전친도 행해지는데 예컨대 부친의 첩을 부인으로 삼는 경우이다. 전혼은 일반적으로 남자의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전혼



의 주체가 되는 여자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전혼의 목적은 집안사람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또 망자의 자녀들이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혼인 풍습은 지금도 일부 빈곤한 산악지대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들 지역은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적어 여자를 얻는 게 쉽지 않아 전친(轉親)을 이용해서 여자를 집에 남아있게 한다.

#### 5. 약탈혼(掠奪婚)

약탈혼은 무력으로 여자를 빼앗아 강제로 결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식의 혼인은 지극히 야만적이다.

고대의 약탈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었다. 그 하나는 전쟁을 통해 승리자가 패자의 재산과 여자를 빼앗는 것이다. 원나라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정벌할 때 공을 세운 장병에게 빼앗아 온 여자를 하사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 가지는 권세가 있는 세도가에서는 권력을 내세워 가난한 집의 여자를 빼앗는 경우가 있다. 이 두 종류의 약탈은 고대문학 작품에 반영되었다. 이런 혼인은 최근 몇 십 년에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 6. 다처혼(多妻婚)

다처혼은 한 남자가 둘 혹은 그 이상의 배우자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정실부인은 한 사람 뿐이며 그 외는 첩 혹은 객녀(客女)라고 칭한다. 다처혼은 봉건시대 지배계급에서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나 일반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부일처가 보편적이고 일부다처제는 드문 현상이었다.

일부다처는 성적 쾌락과 다산 외에도, 자신의 지위, 재산, 세력 등을 과시하는 목적도 있어서, 부인이 많은 것은 자랑이었다.

역대 처첩이 가장 많았던 것은 황제들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서한(西漢) 말, 왕망(王莽)이 한(漢)을 차지하고 황제가 되었을 때, 120명의 처첩이 있어야 사후에 승천 할 수 있다고 하여, 70살이 다 된 나이에 황후1명, 부인3명, 빈9명, 미인21명, 어인(御人)81명 등 모두 120명을 채웠다. 진무제(晉武帝)는 몸소 미녀를 간택해 비빈, 궁녀로 삼았고, 후에는 또 멸망한 오나라황제의 후궁을 받아들여 그 수가 만 명에 가까웠다. 수양제(隋煬帝)때는 황후 외에 부인3명, 빈9명, 세부(世

婦)20명, 어인(御人)78명이 있었다. 처첩이 가장 많은 것은 당현종(唐玄宗)이며 4만 여에 달하는 후궁이 있었으며, 황제를 따라 관료, 귀족, 지주들도 처첩을 대거 거느렸다.

일부다처는 봉건사회 남녀불평등의 산물이다. 남자는 여러 명의 처를 거느릴 수 있었지만, 여자는 평생 한 사람을 섬겨야 했다. 이런 다처혼의 존재는 봉건사회의 일부일처제가 유명무실함을 설명하고 있다. 1949년 이후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진 후에는 혼인법 규정상 남녀 모두 배우자를 하나만 둘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중혼(重婚)죄로 처벌되었다. 이 규정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중국의 다처혼은 사라지게 되었다.

#### 7. 초서혼(招贅婚)

초서혼은 결혼 후 남자가 여자의 집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봉건사회에서 남자는 사회, 가정의 주체로서 남녀가 결혼할 때 대부분 남자가 여자를 자기집안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일부 가정은 만약 딸이 결혼해서 남자 집에 간다면 부모를 부양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게 되므로, 딸에게 남편을 얻어준다. 이런 방식의 혼인을 초서혼이라 하고, 이렇게 여자의 집으로 들어온 남자를 데릴사위라 한다. 데릴사위는 여자의 집안으로 들어온 이상 그 집 식구가 되며, 반드시 여자측 성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와 남자 집안에서는 이를 불명예로 여긴다. 사람들도 데릴사위가 된 남자를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남자는 이런 시선으로 인해 스스로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데릴사위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가난하여 부인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는 여자 측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택하는 방법이다.

현재 결혼 후 상대의 집으로 들어가는 일은 남녀 관계없이 모두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여자 집에 들어가는 남자도 성을 바꿀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지도 않는다. 도시와 비교적 개방된 농촌에서는 젊은 남자가 결혼해 여자 측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위와 장인장모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관계보다 어울리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낙후된 농촌에서는 전통적 편견의 여전히 잔존하며, 남자가 여자 집 호적에 입적하는 것을 가로

막고 있다.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한 지역의 장(張)씨라는 총각과 로(盧)씨집 처녀가 약혼한 후, 여자 집안에 아들이 없고, 어머니의 병세가 위독하자, 장씨가 로씨집에 들어가 살기로 하자, 장씨의 부모는 이를 극구 반대하고 강제로 둘의 관계를 끊으려 하였다. 그러나 장씨가 이에 불복하자 결혼 후에 장씨의 부모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과의 절연을 선언하며, 향후 장씨가 본가에 드나드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이는 초서혼에 대한 전통적인 편견이 아직도 일부지역과 일부 사람들에게는 깊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조혼(早婚)

조혼은 결혼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봉건시대에 일찍 아들을 낳으면 일찍 복이 찾아온다거나 아들이 많으면 복도 많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성행했다. 이런 전통 관념이 조혼 풍습을 만들어 냈고, 또한 보편적이고 심각했다.

역대 법적 결혼연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周)대: 남 30살, 여20살

전국(戰國)시대: 남 20살, 여17살

당태종(唐太宗) 정관(貞觀)시기: 남20세, 여15세

송(宋)대: 남 16세, 여14세

명, 청(明, 淸)시대: 송대와 동일

여기서 알 수 있듯 역대 법적 결혼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결혼이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결혼연령이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규정도 흔했다. 전국시대를 예로 들면 만약 남자가 20세 여자가 17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처벌을 받았다. 한(漢)대에는 15세 이상인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5배의 인두세(人頭稅)를 내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당시 민간의 결혼연령은 조정(朝廷)에서 정한 것 보다 좀 더 빠른 감이 있다. 결혼연령은 사회, 정치, 경제와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전쟁시대에는 사망자와 피난민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생산의 발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인구의 빠른 증가를 위해 조혼을 장려하고 만혼을 처벌하였다. 전국시대와 한나라의 처벌 정책은 이런 상황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철

이 채 들지도 않은 아이들을 일찌감치 결혼을 시키기도 하였는데, 한나라 소제(漢昭帝)는 8세에 황제가 됐으며 황후는 겨우 6세였다. 평제(平帝) 즉위 때 황후는 겨우 9세였다.

결혼도 빠르지만 약혼은 더 빠르다. 그 중 하나는 와와친(娃娃親)으로 불리워지는, 유아시기의 아이들을 약혼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양가가 상의하여 각각 아들·딸을 낳으면 자란 후에 혼인시키기로 약속하는 것으로, 속칭 복중혼(腹中婚)이라 한다. 이러한 조기약혼이 부모들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최근 몇 십 년 국민들의 건강과 인구조절 차원에서 정부는 법적 혼인연령을 “남자는 22세 이후 여자는 20세 이후”로 제정하였고 만혼을 장려하였다. (법적연령보다 3년 이상 늦추며 혼인 하는 것을 만혼이라 한다.) 6,70년대에는 비교적 잘 시행되어 대부분의 젊은이들도 만혼 장려에 호응하였으나, 최근 십 여 년 조기약혼 조기결혼 현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1987년 말 후저우(湖州)의 경우, 법정연령 전에 결혼한 남녀가 전체 기혼자 수의 4.91%에 달하였다. 변방지역인 간쑤(甘肅)성 농촌의 경우 조기 결혼자 수는 더욱 많아, 모현에서 한 해 결혼한 280명 가운데, 조혼자는 40%에 해당하는 135명이며 결혼연령은 대부분의 18세이고, 가장 어린 나이는 14세에 불과했다. 안후이(安徽)성은 비록 변방 지역은 아니지만 역시 조혼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며, 통계에 따르면 1988년 18만 명이 결혼했는데 그 중 4만3천명이 조혼을 했다. 조기약혼도 각 지역의 농촌에 비일비재하며, 일부 농촌에서는 80%가 2,3세에 조기약혼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이 조혼과 조기약혼의 풍습이 여전히 환영받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9. 민며느리

민며느리는 봉건시대에 일종의 비정상적인 혼인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집안에 아들은 있으나 나이가 어려서, 우선 가난한 집 여자아이를 입양하거나 사들여서 양녀로 기른 후 아들이 다 자라면 이들을 결혼시킴으로써 양녀가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여자아이를 입양하거나 사들이고, 아들이 태어나

성장한 후 들을 결혼시키는 것이다. 민며느리가 남자 집에 들어 올 때는 나이가 많지 않아 대개 열 살 미만에서 십대 중반 정도이다. 남자아이의 아내라는 명목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비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자 집은 그녀를 며느리로 간주하여 노동력으로 여긴다. 민며느리는 온종일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하고 또한 그 남자아이와 부모의 생활을 돌봐야 한다. 민며느리들은 식구들이 먹다 남긴 밥을 먹고 현웃을 입으며 매를 맞고 욕을 듣는 것이 다반사인 만큼 비참하게 살았고, 또한 사회적인 지위도 낮아서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당했다. 그러므로 남의 집에 민며느리로 가는 것은 부모가 입에 풀칠할 양식이 없고 몸을 가릴 옷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아이를 위해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민며느리의 피눈물 나는 생활을 고전 문학 작품 중에도 많이 폭로 되었다. 1950년 제정된 새로운 혼인법에서는 이런 악습을 다 제거하였다.

#### 10. 명혼(冥婚)

명혼을 속칭 영혼결혼, 즉 이미 죽은 남녀의 결혼을 말한다. 이는 영혼 신앙이 결혼문제에서 표현된 것이다. 명혼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남녀 두 사람이 생전에 이미 약혼을 하였으나 결혼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이다. 다른 한 가지는 남녀모두 생전에 약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혼담도 없었으나 사후 중매자가 알선하여 결혼을 하는 것이다. 명혼의 결혼방식은 일반적으로 남녀 두 사람의 관을 부부처럼 같이 매장하는 것이며, 장례식이 곧 결혼식이며, 어떤 지방에서는 운구할 때 앞에는 결혼 꽃가마를 드는데, 가마 안에 신부의 영혼 신주패가 놓이고, 가마 뒤에는 관을 들고 따르는데 앞뒤는 운구를 따르는 행렬이며, 가는 내내 취타수가 나팔을 불고 북을 쳐 그 흥겨움과 시끌벅적함이 산 사람의 혼례식 못지않다. 물론 명혼을 치루는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계층이었다.

명혼은 과거에 각 지역마다 전해 내려오다 1949년 후 봉건미신반대의 흐름 때문에 사라졌다. 그러나 근 몇 년 사이 미신사상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982년의 한 보도에 따르면 북경 모 공장의 한 부부는 막 죽은 아들의 관을 산동으로 옮겨 죽은 여자와 결혼을 시키고 결혼 피로연을 개최하였는데 참으로 황당하고 우스운 일이다.

## 11. 전처(典妻)

전처는 일종의 임시적인 비정상적인 혼인으로, 빈곤한 농촌에서 자주 발생한다. 민간에서는 이를 “(남의) 아내를 빌려 아들을 얻기”라고 한다. 이는 아내가 있는 남자가 돈 때문에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과, 아내가 없거나 혹은 있어도 아들이 없는 남자가 아들을 얻기 위해 돈을 내서 임시 아내를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이 두 남자 중 한사람은 아내를 돈을 버는 상품으로 여기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를 아들을 낳는 도구로 여긴다. 어찌 되었건 모두 여자를 사람 취급 하지 않는 것이다. 남자가 지배하는 봉건시대에 여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단지 남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야만스런 악습에 대하여 원나라 때에는 “돈을 받고 아내를 맡기는 행위를 금한다”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1949년 이전에는 신문에서 이런 일을 흔히 접할 수 있었다.

## 二. 현대혼인의 새로운 풍습

1949년 후 국가는 새로운 혼인법을 실시하였고, 혼인의 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새로운 결혼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혼인관념, 혼인풍습을 바로 잡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혼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은 단순히 후손을 낳는 의미에서 사랑을 위한 결합으로 바뀌었다. 결혼 생활 중에서 남녀는 자유롭게 연애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혼한다. 이렇게 결합된 결혼은 쌍방이 서로 가정에 충실하게 되므로 생활 기반이 견고하고 결혼생활이 원만한 경우가 많아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방식으로 공인되었다. 이런 결혼방식은 도시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었으나 농촌에서는 보급수준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농촌에서는 이런 결혼이 전체 결혼 중 절대부분 혹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혼인관념과 낡은 결혼풍속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는 지방에서는 일종의 반자주(半自主)적 결혼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중매쟁이와 부모, 당사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중매쟁이가 소개를 하고, 부모가 결정권을 갖고, 당사자는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강제와 자유가 결합된 결혼은 자유연애 및 자주적인 결혼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소개’보다 크게 발전한 것이

다. 조사에 의하면, 이런 삼위일체의 결혼은 현재농촌 결혼의 보편적인 방식이며 전체 결혼의 55%를 차지한다. 모 잡지 보도에 따르면 어느 한 농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결혼한 300여 쌍의 부부 중 자주적인 결혼은 겨우 1%이며 99%가 반자주적 결혼 및 부모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정해주는 결혼을 했다. 농촌의 결혼관념 및 봉건적 결혼관념, 결혼악습의 폐지는 아주 힘들고 버겁다. 그러나 새로운 결혼형식이 계속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결국 전통적인 혼인풍속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언젠가는 부모가 정하는 강제결혼과 반자주적 결혼은 자주적 결혼이라는 새로운 풍속에 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보인다.

### 三. 배우자 선택 기준

어떤 이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느냐는 같은 시대에 항상 몇 가지 공통된 기준이 있기 마련이며, 이런 기준은 다른 시대에도 이어지는 전승성(傳承性)을 지닌다. 중국에서 이러한 전승성은 배우자 선택 기준의 외적 요소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즉 배우자를 고를 때 남녀 두 사람의 성격, 감정 등의 내재된 요소를 무시하고 정치, 경제, 용모 등의 외적 요소를 우선으로 놓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자 선택과 애정을 분리하는 방법은 봉건결혼의 가장 큰 특징이다. 봉건시대에서 자녀의 결혼의 결정권은 부모 및 집안 어른들에게 있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당연히 가족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선적으로 두 집안의 정치, 경제상황이 서로 맞는지, 즉 '집안끼리 서로 어울리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남자측은 여자의 외모가 어떤지, 지병은 있는지, 후손을 낳을 수 있는지, 품행은 단정한지, 어른에게 효도를 하는지, 바느질을 할 줄 아는지, 사주팔자는 남자와 맞는지 등을 고려하고, 여자측은 남자가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지, 신체는 건강한지, 시부모는 선량한지, 자기 딸을 잘 대하는지, 남자의 형제자매는 몇인지 등을 고려한다. 남녀 두 집안의 많은 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집안이 서로 어울릴 것, 남자는 능력 있고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울 것, 남자는 키가 크고 여자는 작을 것 등이다.

집안이 어울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일반적으로 남녀 두 집안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이 같거나 엇비슷한 경우를 집안끼리 맞는다고 한다. 집안

끼리 어울리는 결혼을 쉽게 성립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친척, 벗들의 인정과 칭송을 받는다. 반면 남녀 두 집안의 정치적 지위, 경제적 능력에 큰 차이가 있으면 집안끼리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결혼은 자주 사회와 가족 등으로부터 제재와 비난을 받으며 결혼이 성사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므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가문끼리 어울리는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흔히들 얘기하는 “높은 집안끼리, 낮은 집안끼리”이다. 물론 각 계급의 가정마다 가문에 대한 고려 사항이 다르다. 봉건시대 상위계급의 통치자는 혼인에 의한 결합을 일종의 정치적 수단으로 여겨, 혼인관계를 통해 집안의 정치적 지위와 세력을 굳혀 나간다. 이 점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역대 제왕들의 혼인이다. 즉 어떤 경우도 정치적 혼인이 아닌 적은 없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의(溥儀)가 황후를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몽고왕족, 또는 만주족이나 몽고족 대신의 딸 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집안의 딸이 선택을 받을까? 언제나 황제 및 왕후 주변의 정치 세력의 투쟁을 통해 결정되었고, 결국 세력이 강한 쪽이 성공을 거두었다. 이밖에도 순전히 정치적인 혼인이 있다. 삼국정립(三國鼎立)시기를 보면, 오(吳)나라가 촉(蜀)나라와 연합하여 위(魏)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오나라의 손권(孫權)은 여동생을 유비(劉備)에게 시집보내는 방법을 썼는데, 혼인을 이용해 오나라와 촉나라는 연합할 수 있었다. 때로는 민족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역대 제왕들이 ‘화친(和親)’이라는 방법을 종종 사용했다. 이는 황제의 딸이나 수양딸을 소수민족의 우두머리에게 시집보내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한나라 원제(漢元帝)는 왕소군(王昭君)을 흉노 왕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에게 시집보냈다. 당태종(唐太宗)도 문성(文成)공주를 서장(西藏, 즉 티벳)의 송찬간포(宋贊干布)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중국고대에 흔한 일이다. 아울러 이런 혼인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정치형세에 변화가 생기면 혼인을 곧 파기되고 그 여자는 자연히 희생물이 된다. 이런 일은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앞에 소개한 오나라 손권의 여동생이 유비에게 시집간 결과는 오히려 손권을 끝까지 힘들게 하였다. 조조(曹操) 수하의 사마의(司馬懿)는 조조의 신임을 얻기 위해 큰아들을 조조의 조카딸과 결혼 시켰다. 사마의의 큰아들이 정권을 차지하려 할 때가 되자, 부인이 조씨 집안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부



인을 죽였다.

상층 관료, 귀족 중에 혼인을 통해 출세의 길을 얻은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집안의 귀한 딸이 황족이나 왕족에게 시집갈 수 있다면 그것은 조상의 은덕이며 온 집안의 영광이다. 이는 한순간에 황제와 친척이 되며 또한 가족 중에 남자들이 빠른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중소지주, 관리는 경제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종종 자식의 혼인을 이용해 큰 부자가 된다. 일반인의 가정에서는 딸이 부유층에 시집가는 경우 행복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딸은 자신들이 경제상황 보다 조금 괜찮은 집에 시집보내 딸이 결혼 후에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한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가난한집의 딸을 눈여겨 볼 경우 (가난한 집의) 온 집안의 반대와 방해에 부딪히게 된다.

집안과 어울리는 배필을 선택하는 관념과 풍속은 중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근·현대까지도 여전히 배우자 선택을 좌우한다. 1912년 손문(孫文)총통수하의 혁명가 장병린(章炳麟)선생이 신문에 공개구혼 광고를 냈다. 그 중 두 번째 조건이 “명문가 태생의 규수, 품행이 단정한 사람”인데 “명문가의 규수”라는 문구는 그의 머릿속에 여전히 가문을 중시하는 사상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당시 부르주아 혁명의 지도자조차도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40년 동안 사회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구시대의 사람들 간의 지위 등급 관계가 평등이라는 새로운 사회관계로 점차 바뀌어 갔다. 이는 각종 사회적 업무에 있어서 일이 나뉘지는 것이 다를 뿐 여기에 높고 낮음이나 귀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통계급관념의 영향 아래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직업을 여러 등급으로 나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상대방의 직업, 봉급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이는 최근 40년 도시 젊은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 추세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50년대 대량의 공산당과 정부 간부들이 도시로 들어와 각종 직업의 고위 직책을 맡았다. 그중 미혼자들은 곧 당시 처녀들의 목표가 되었다. 물론 정치 외적인 요소도 포함되긴 하지만, 정치적 요소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다. 비록 당시 신문 지상에 나열된 순서는 공(工)·농(農)·병(兵)·학(學)·상(商)이지만 처녀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는 우선적으로 군인과 국가간부, 그 다음이 각계의 당원들 이었

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시기에 정치가 최우선의 고려대상일 때 ‘군인’이 일등 신랑감이었고, ‘군인’과 결혼하는 것은 커다란 영광이었으며, 만약 상대방이 군 간부이면 더더욱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군인과 결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자 측 집안에서 가장 잘 된 경우 군인 간부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자 혹은 빈농(貧農), 나머지는 고려대상에 넣지 않았다. 지위가 군인보다 낮은 것은 기술자로 나머지 가정의 처녀들은 차선책을 찾아 기술자의 아내가 되었다. 70년대 후기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사람들의 사회가치관에 아주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정치적 조건’은 이미 배우자를 고를 때 중요시되지 않았고, 경제적 조건이 우선시 되었다. 원로 간부 복직정책을 실시 할 때 복직한 간부들에게는 집과 돈,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제들이 처녀들의 구애의 대상이 됐다. 얼마 후 지식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간부 지식화를 실시 할 때 순식간에 지식인들은 처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으로 선택하는 대상이 되었다. 80년대 후기 개혁개방 후 과거에 사람들이 꺼리던 ‘해외관계(해외에 연줄이 있는 사람)’가 처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대체로 용모가 뛰어난 아가씨들은 외국인, 화교 등과의 결혼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 심지어 가수, 영화배우도 외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으로 갔다. 택시 운전사, 식당, 호텔 종업원, 합작기업이 노동자를 구애대상으로 두었다. 그 외 과거 천년동안 줄곧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여겨진 ‘상업’도 갑자기 번성하기 시작하여 많은 도시 아가씨들이 개인 사업가 혹은 농촌의 특정업종 경영 농가, 농민 기업가 등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비록 최근 사십 년 동안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 양상은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왔고, 때로는 정치에 기울거나 경제에 치우치지만, 그러나 이 사십 년 동안 이루어진 혼인을 보면 대부분은 두 집안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비슷한 경우로 어떤 집은 같은 노동자 가정, 어떤 집은 같은 농민 가정, 어떤 집은 같은 간부 가정, 어떤 집은 같은 지식인 가정이다. 그중 비록 문화 수준, 직업 배경, 생활 방식과 습관 등 많은 요소의 영향이 있었지만 전통적인 가문을 중시하는 배우자 선택기준은 아직도 커다란 작용을 하고 있다.

‘남자는 능력, 여자는 미모’는 중국인들이 줄곧 가장 이상적으로 여겨온 부부상이다. 봉건시대에는 남자는 가정안팎을 지배하므로 남자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여자는 단지 남자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남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외모

를 잘 가꾸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당시 가장 모범적인 결혼은 훌륭한 두 가문의 능력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의 결합이다. 중국 고전소설과 희극에는 이러한 결혼이 길게 묘사되어 있다. 장원(狀元)이 황실의 사위가 되고, 재능 있는 자가 부잣집 아가씨와 결혼하고 문무를 겸비한 군대를 통솔하는 장수가 사령관의 딸과 결혼하는 등, 이런 장원, 수재, 장수 등은 모두 옛 어른들의 눈에는 맘속에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그럼 어떤 여자를 용모가 아름답다 하는가? 주로 몸매와 생김새 두 가지를 두고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고대 문학작품에 드러난 묘사를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피부살결이 희고 보드랍고 버드나무처럼 가는 허리, 오이씨 같은 가름한 얼굴, 버들잎모양의 고운 눈썹, 살구씨처럼 아름다운 눈, 쌍꺼풀, 큰 눈, 검은 머리, 앵두처럼 작은 입, 작고 가지런한 새하얀 이빨, 죽순처럼 가느다란 손가락 등이다. 몸매에 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당나라 때는 풍만을 아름다움으로 여겼고, 송나라 이후는 작은 발을 묶어 썩 전족을 아름다움으로 여겨 발이 크면 부끄럽게 여겼다. 비교적 구체적인 미인의 형상은 오늘날 불교사찰의 관세음보살과 전통 희극 중의 귀족 아가씨 분장을 통해 알 수 있다.

능력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라는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의 기준은 지금도 여전히 청춘남녀의 혼인과 연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다. 남자가 배우자를 고를 때 예쁜 아가씨를 원치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내가 예쁘면 남자는 자부심을 느낄 뿐 아니라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을 때조차도 빛이 난다. 그러므로 본인의 조건이 좋아서 아내를 고를 자격이 생기면, 대개 배우자의 용모를 따져, 공개구혼을 할 때에는 ‘아름다운 자태와 용모 겸비’, ‘용모 단정’, ‘수려한 용모’, ‘뛰어난 미모’, ‘날씬한 몸매’, ‘건강미’ 등등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모관련 단어는 거의 다 사용하였다.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여자가 공개구혼을 할 때는 남자보다 요구조건이 더 많다. ‘확실한 일처리 능력’, ‘사업가 스타일’, ‘추진력’, ‘학구적’, ‘양질의 교육 수준’, ‘상당한 학력 소유자’, ‘교양 있는 사람’, ‘연구 및 해외 무역업 종사자’ 등이다. 400여 명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80%의 사람이 배우자를 고를 때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한 마디로 젊은 남성 대부분은 ‘생활형’ 아내를 선택했으며,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사업형”

남편을 찾고자 했다.

우리는 젊은 남녀의 공개구혼광고를 비교한 결과 한 가지 흥미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상대방의 연령, 키, 성격, 품성은 거의 모든 남녀의 공통적인 요구이며, 다른 점은 남성 구혼자 중 진취적 사고와 사업적 능력을 지닌 여성을 요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재능과 지식을 갖춘 남성을 조건으로 내세운 여성 구혼자 중 남성의 외모에 대해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차이는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라는 전통적인 선택기준이 여전히 통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실제로 남자는 여자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상당수가 능력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게 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대학을 졸업했거나 혹은 석사라면 바로 고개를 저어 거부한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한다. “밖에서 일 때문에 종일 시달리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쉬고 싶지, 잘난 아내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건 남녀가 배우자를 고를 때, 남녀의 조건 중 남자의 조건이 여자보다 좋아야 함을 뜻한다.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은 부부관계가 조화로운 관계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집안끼리의 어울림(門當戶對)’이다. 이는 봉건시대의 남성우월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남성이 모든 부분에서 여성보다 잘나야 아내가 남편에게 순순히 복종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시대에는 모든 부분에서 여성은 남성을 능가할 수 없었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문화와 기술을 익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사회에 나와 직업에 종사하지만, 여자들은 부유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베를 짜서 옷을 만들고, 요리를 하는 등 주로 가사를 돌보아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벽촌이 아닌 이상 남녀모두 교육과 직업 상황이 비슷해졌고, 특히 도시의 경우 현저한 차별은 거의 사라졌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고를 때 젊은 남녀는 둘 중 누가 높고 낮은가를 비교하는데, 남성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낮기를 희망하고 여성들은 남성이 자신보다 높기를 바란다. 소위 말하는 높고 낮음을 다음 세 가지 부분이다. 첫째는 남성의 교육수준과 학력이 여성보다 높고, 두 번째는 여성보다 키가 커야 하고, 세 번째는 남성의 나이가 여성보다 많아야 한다. 즉 남자들 중 신체와 학력, 교육수준이 모두 높은 사람이 배우자로서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이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많은 여성들의 선택의 대상이 되고, 상대를 선택한 자격을 가장 잘 갖췄다

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고학력과 큰 키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면 학력(혹은 교육수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다. 그러므로 절대다수의 남성들이 자신보다 학력이 높은 아내를 바라지 않는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학력이 자신과 동등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학 졸업한 남자와 대학원 졸업한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는 기가 죽고, 다른 남자들로부터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남성 대부분은 여성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된다고 여겼다. 광저우(廣州)의 한 결혼 소개소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미혼 남성 중 54.2%는 여성의 학력에 관심이 없다고 하였고, 그 중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16명 중에는 동등한 학력의 여성과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반대로 교육을 받은 여성 대부분은 남성의 학력이 자신보다 높거나 적어도 자신과 동등하기를 희망하였다. 절대다수가 자신보다 낮은 학력을 원하지 않았다. 이 점은 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들에게 뚜렷이 나타났다. 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커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일반적으로 키가 5~10cm정도 차이가 나야 가장 좋다고 여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의 키가 자신보다 큰 것을 용인하지 못한다. 또한 대부분의 여자 역시 남편이 자신보다 작은걸 허용하지 않는다. 남녀를 비교해 보면 여성이 배우자를 고를 때 남성보다 더 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근 십여 년 사이 많은 여성들이 농담으로 키 175cm 이하인 남성을 2급 장애인, 키가 170cm 이하인 남성을 1급 장애인이라 불렀는데, 이는 여성들이 그만큼 키 큰 남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나머지 하나는 나이다. 전통 관념에서는 '남자는 열 살 많아도 괜찮지만, 여자는 한 살이 많아도 안 된다.' 현재 보편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섯 살 정도 많은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겨지며, 남성들은 대개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만약 두 사람이 동갑인 경우는 괜찮다고 한다. 그러므로 70년대 후반부터 키 작고 저학력에 전문 기술이 없는 남성들과 키 크고 고학력에 나이 많은, 소위 '노처녀'라 불리는 여성들은 연애와 결혼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점은 근 몇 년의 공개 구혼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89년 7월 23일《북경만보》에 게재된 여자 네 명의 구혼광고를 보면 그 중 세 명은 초혼이고 나이는 31, 34, 38세이며 평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광고를 낸 남성은 키 170cm 이하에 고졸이하의 학력이었다. 또한 1987년 9월 15일 《무한만보》의 공개구혼에 참가한 남성 스물 두 명 중 키 170cm이하인 사람은 전체의 63%인 14명, 175cm이하인 전체의 90%인 20명으로, 남성의 키와 여성의 나이 및 고학력이 분명한 걸림돌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키, 나이, 외모, 학력은 모두 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며, 젊은 남녀가 배우자를 고를 때 이런 외적 조건만을 지나치게 따지는 경향으로 인해 외적 조건이 연애와 결혼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말았다. 구혼광고와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구혼자는 자기소개는 물론 상대방의 소개를 요구하는데, 가장 앞에 놓이는 여섯 가지가 나이, 키, 혼인 상황, 용모, 학력, 직업 등이다. 외국인들은 중국의 공개구혼광고를 보고,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지 의아해 한다. 이는 중국과 서양의 결혼관의 차이와, 서양인은 감정을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물론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남녀는 상대방의 외적인 조건 외에도 상대의 성격, 교양, 소양, 기질, 풍채, 특기 등의 요소를 눈여겨보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교양, 성실함, 선량함, 온화함, 어진 품성, 단정함, 사리분별, 깊은 감정, 양전함, 명량함 등을 요구하였고, 여성들은 남성에게 성실함, 정직함, 명량함, 교양, 온화함, 자신의 사상, 책임감, 다양한 취미, 자상함을 요구하였다. 인품과 성격, 교양 등은 남녀젊은이들이 배필을 고를 때 공통된 요구임을 알 수가 있다.

최근 몇 십 년 배우자 선택 기준의 변화는 이상적인 남편상, 이상적인 아내상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3,40년대의 젊은 남성들은 《홍루몽(紅樓夢)》중의 임대옥처럼 예쁘고 총명한 여자를 선호했고, 5,60년대는 《청춘의 노래(青春之歌)》중의 진보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고 예쁜 주인공 린따오징(林道靜)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경극 《항구(海港)》의 강인하고 능력 있는 여성인 팡하이젠(方海珍)이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최근 십여년에는 보편적으로 예쁘고 어질고 현명한 ‘현모양처’형 여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의 남자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 3,40년대는 가보옥같은 귀공자 스타일이, 5,60년대는 《홍과흑(紅與黑)》의 주인공 위리엔(于連)이, 70년대는 일본영화《君よ、憤怒の川を渉れ (중국어명 “追捕”)》의 다카쿠라켄(高倉健)처럼 남자다운 강인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남자였다. 여성들은 현실에서 다카쿠라켄 스타일의

남자를 찾으려 하였고, 어떤 이는 잡지 기고를 통해 ‘어디 가면 다카쿠라켄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들의 눈에는 중국 남자들이 매우 유약하고 강건한 기질이 부족하여, 심지어는 “중국 남자들은 퇴화했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였다. 현재 여성들 사이에서는 키 크고 건장하며, 전문직에 종사하고, 진취적이고 더불어 가사 일을 할 줄 알고, 아내에게 자상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는 남자가 이상적인 남편으로 통한다.

#### 四. 배우자 선택 방법

봉건시대에 남녀의 혼인 성사의 주요 방법은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소개’였다. 즉 부모와 혼인을 성사시키는 일에 종사하는 중매쟁이가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그들이 상의하여 결정하면 남녀 당사자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배필 선택과 혼인 당사자가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형식은 봉건혼인의 또 다른 큰 특징이다.

‘부모와 중매쟁이’라는 배필 선택의 과정은 봉건적인 예법과 도덕에 부합하고, 봉건국가의 법률에도 부합한다. 후한(后漢)의 반고(班固)는 그의 《백호통(白虎通)·가취(嫁娶)》에서, 부모와 중매쟁이에 의해 결정된 혼사는 남녀를 치욕과 음란함으로부터 지켜준다고 하였다. 당(唐)대와 명대에는 부모가 자녀의 혼사를 주관하고, 혼인에는 반드시 중매인이 있어야 한다는 법이 있었다. 물론 이 법은 당나라와 명나라 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이전 왕조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당사자는 혼전에는 부모나 중매쟁이 등에게 상대방의 지위, 재산, 식구와 상대의 직업, 용모, 나이 등 상대의 가정 및 개인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고, 신혼 첫날밤에야 부부 두 사람의 첫 대면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선 결혼 후 대면’이다.

이러한 배우자 선택의 방식은 당시의 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농업위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농민이 자신의 국가 안에서 일상생활과 노동을 영위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은 집안 식구들이어서 외부인과 접촉하는 기회가 적었다. 부유층의 자식들도 이성을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다. 당시 봉건 예법의 구속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남녀 젊은이들은 완전히 단절된 상황 아래서 연애는 물론 배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고, ‘부모와 증매쟁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부유층 가정에서는 ‘데릴사위’나 ‘공개구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딸에게 마음에 드는 남편을 찾아주기도 하였다. 데릴사위는 부모가 공개적으로 사위를 구하는 것이며, 그 방법을 보면 무술 시합, 시 대결, 그림 대결, 글짓기 대결, 대련(對聯)<sup>3)</sup> 등이 있다. 무술 명문가에서는 주로 무술 시합을 하였고, 나머지 여러 방법은 문관 가문에서 사용하였다. 무술 시합에서 승리한 사람은 무예가 뛰어난 무사이며, 시, 그림, 문장, 대련 시합의 승리자는 재주가 출중한 사람이다. 북송 때에 허난(河南) 카이펑(開封)의 마원외(馬員外)는 딸에게 글재주가 뛰어난 남편을 구해주기 위하여 대련 시험을 냈는데, 왕안석(王安石)은 북경으로 시험을 보러가는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즉시 가서 응하였다. 마원외는 그가 쓴 구절을 보고 매우 만족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를 사위로 삼았고, 훗날 왕안석은 유명한 문학가가 되었다. 마원외처럼 대련 등의 방법을 이용해 사위를 고르는 일은 고전소설이나 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구혼 방법 중에 완전히 운에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여자 측의 대문 앞에 화려한 누대를 지어놓고 딸로 하여금 위에서 아래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채구(彩球)를 던져 그 채구를 받는 사람이 그 집안의 사위가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법 역시 고전소설과 희극에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택될 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젊은 남녀들이 가장 선망하는 방법은 첫눈에 반하는 것이다. 즉 미혼남녀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사모하는 것이다. 평상시 밖으로 나갈 기회가 힘든 귀한 딸이 우연히 잘생긴 서생을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흔치 않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종종 집안과 사회의 반대에 부딪치며, 풍속을 문란케 한다고 비난을 받는다. 고대 문인들은 소설이나 희극을 통해 이런 방식을 찬양하였으며, 청춘 남녀들이 자유로운 혼인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신문이 발간되면서 생겨난 신문 지면을 이용한 구혼광고는 새로운 방법이다. 구혼자가 자신의 배우자 선택 기준을 신문 상에 공개하는 것은 봉건혼인

3) 대련(對聯)이란 짝을 이루는 두 문장으로 그 글자 수가 같아야 하고, 대칭되는 위치의 단어는 품사격이 같아야 하고 의미가 상관되어야 한다. 한시(漢詩)에 많이 쓰이며 저자의 문장능력을 나타낸다. 옛 문인들은 한 사람이 앞 구절(상련[上聯]이라고 함)을 짓고 다른 사람이 뒤 구절(하련[下聯]이라고 함)을 이어 짓는 문자놀이를 많이 한다.



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커다란 진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들은 진보적인 사람들로 풍옥상(馮玉祥) 같은 경우 베이징 신문에 구혼광고를 낸 후 수많은 응모자들에게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한 교사를 선택하였다. 1912년 43세의 장병린(章炳麟)은 후베이(湖北)의 한 신문에 공개 구혼광고를 실어 일순간에 미담의 주인공이 되었다.

1949년 이후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말’에 의해 배우자를 고르던 방법에 전례 없는 변화가 찾아왔다. 이를 대체한 것은 남녀가 스스로 연애 상대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젊은 남녀들은 공부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짝을 선택했다. 이런 새로운 선택 방식은 세인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의 커다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전통적인 혼인관념과 습관이 뿌리 깊이 박혀있고, 더욱이 남녀 간의 교류 방법이 적고 교제 범위도 넓지 않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배필을 골랐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배우자를 고른 비율은 스스로 선택한 경우보다 높다.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에서 1984년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조사에서 보면, 소개에 의한 결혼은 전체 결혼 건수 중 각각 68.3%, 65.1%, 60.8%를 차지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치는 아니다. 조사에 의하면 티엔진(天津)은 71%에 다 달았다. 전국단위로 살펴보면 완전히 스스로 배필을 선택한 경우는 전체 결혼 건수의 30%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부모와 중매인’ 식의 전통적인 배우자 선택방식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짝을 선택하는 방식도 쉽지는 않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에서 자유연애와 스스로 짝을 찾는 방법에 대해 사람들은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으며,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하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그런데 스스로 상대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은 상대가 동창이나, 동료, 고향 친구인 경우가 많다. 이성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부모, 친척, 동창, 친구, 스승 등의 사람들의 소개로 만나고 결혼한다.

농촌에서는 객관적 조건의 제약이 더 많다. 무엇보다도 어른들은 젊은 남녀가 스스로 배필을 찾는 것에 대해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어른들은 자녀에 대한 모든 부분에 조심성을 갖고 자녀의 상대 역시 직접 나서서 찾는다. 또한 젊은이들 간에 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들은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소개 혹은 부모의 결정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말’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 영향을 받는 것 외에 사회적 교류와 활동이 적은 탓도 타인의 소개에 의하여 배필을 선택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근 몇 년 사회 각계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혼인 중개소 개설, 신문과 TV, 라디오, 잡지 등을 이용한 구혼 프로그램 개최, 노동조합 등에서 주최하는 친목회, 학예회, 무도회, 다과회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젊은 남녀의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 한편, 과거 같은 업종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연애를 다른 업종까지 범위를 넓혔고, 단일한 만남의 방법이 좀 더 다양해지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 五. 휴처(休妻)와 이혼

휴처(休妻)는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고 이로써 부부관계를 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국 봉건시대에 부부관계를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현대의 ‘이혼’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혼은 남녀 어느 쪽에서도 제기할 수 있고 남녀 간의 감정이 악화되는 경우 법적 수속만 거치면 혼인 관계가 무효화된다. 그러나 휴처는 이와 다르게 혼인 관계를 무효화하는 권리는 남자 쪽만 갖고 있다. 남자는 휴처를 할 권리가 있지만 여자는 휴부(休夫)를 할 권한이 없다. 또한 휴처는 남편이 휴서(休書)라는 문서를 쓰거나 혹은 말로만 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휴처를 당한 여자는 그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손바닥 뒤집듯 간편한 휴처의 절차는 번거롭고 복잡한 결혼 절차와 크게 다르므로 그야말로 ‘아내를 얻기는 어렵지만 버리기는 쉬웠다.’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쉽게 휴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봉건시대의 예법에서는 칠기(七棄, 즉 칠거)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칠거란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자식, 음란, 질투, 불치병, 수다, 도둑질 일곱 가지를 말한다. 어떤 이는 칠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시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며느리는 덕에 위배된다,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것은 가문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음란하여 가정을 어지럽히는 것, 남편의 첩을 질투하여 가정을 불안하게 하는 것, 심각한 병으로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 말이 많아 시비를 일으키고,

가족을 이간질하는 것, 도둑질로 가문을 욕되게 하는 것, 시댁의 재산을 훔쳐 집안을 곤궁에 빠뜨리는 것이, 칠거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남편은 곧 휴처를 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세 가지 상황에서는 휴처를 할 수 없다. 첫째는 현재 시부모 상중인 경우, 둘째는 예전에는 집이 가난했지만 지금은 부유한 경우, 셋째는 처가에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첫째는 아내의 은덕을 잊지 말라는 것이며, 둘째는 집안이 가난했을 때 부부가 같이 고생했는데 집안이 부유해지자 아내를 버리는 것은 도덕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친정에 사람이 없는데 휴처를 하면 아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삼불거(三不去)'라 한다. 위에 상술한 칠거와 삼불거의 내용으로 보면, 결혼은 남녀간의 감정을 불문하고, 가족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 봉건시대에 이혼과 감정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을 보여준다. 칠거의 비합리성에 대해서는 고대의 진보적인 인사들도 불만을 표했다. 명대의 송렴(宋濂)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악질(惡疾)'과 '무자식'은 여성들 본인도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스스로도 불행한데 어떻게 그 아내를 버릴 수 있겠는가? 청대 유정섭(俞正燮)은 남자는 처첩을 거느리는데 여자는 평생 한 남편만을 섬기면서 질투조차 허락되지 않고, 첩을 질투했다가는 쫓겨나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여겼다. 물론 당시 칠거의 부조리에 대해 비판하는 자는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휴처의 칠거와 삼불거 규정은 당나라 때부터 법률로 명시되어, 예, 즉 봉건예법에 맞고 법률에 부합하도록 되어 있었다. 칠거는 남자들이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핑계가 되었고, 문헌의 기록을 보면, 휴처의 이유는 위의 일곱 가지보다 훨씬 많아서, 밥이 설거나 발이 큰 것도 휴처의 이유가 되었다. 반면 삼불거는 한 날 백지에 불과하여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봉건예법은 여자에게 '일부종사(一夫從事)'를 요구하였고, 재가를 금했다. 휴처를 당한 여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도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대다수가 자살을 하거나 절로 들어갔다. 문헌에 따르면, 북제(北齊)시대 당주(黨州)에 과부와 자식이 없는 여자와 휴처를 당한 여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사찰이 건립되었다.

비록 휴처가 남편 입장에서는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었으나, 실제로 휴처를 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중국은 전통

적으로 결혼은 좋지만, 이혼은 나쁘다는 관념이 강하다. 매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은 ‘백년해로’, ‘백년지혼’ 등을 인용하여 부부가 화목하고 아름답게 평생을 같이 살아가라고 축하한다. 결혼 후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아들딸을 두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복이 많은 사람’, ‘좋은 운명을 타고 난 사람’ 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만약 부부가 이혼하면 이는 가정의 가장 큰 불행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집안이 전생애 죄를 지어 조상의 은덕이 쌓이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일반사람들은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더라도 이혼만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천명(天命)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부부의 결합은 하늘이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속칭 ‘연분’은 부부관계가 나쁠 때도 ‘하늘이 정했다’라고 여겨, 사랑은 ‘하늘의 명에 복종 할 수밖에 없다’라 여겼다. 물론 또 다른 원인들도 있지만, 앞서 말한 두 가지가 가장 주요한 것이며, 이런 사상의 영향 아래 중국봉건시대의 결혼은 또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갖추었다-이혼불가.

이혼이 처음 나타난 건 신해혁명 직후부터이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 이혼의 자유가 있음을 강조한 것은 1949년 새로운 《혼인법》이 나오면서부터다. 몇 십년 사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줄곧 낮은 이혼율을 보이다가 80년대에 와서 다소 높아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북경을 예로 들자면 1983년의 이혼율은 겨우 4.8%였다.

그러나 근 사십여 년 이혼율도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1950년 공포된 봉건혼인제도 폐기를 위주로 한 제1혼인법이 제정된 후, 많은 부녀자들은 이미 성사되었거나 약혼을 한 상태인 봉건혼인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953년에 1차 이혼 붐이 일면서 접수된 이혼서류가 117만 건에 달하였다. 1954년 이후 이혼율이 하락해서 1980년까지 안정세를 보였으며, 문화대혁명 십 년간은 이혼율을 더욱 낮아졌다. 이는 당시 국가 법률이 심하게 훼손되어 하위 법원에서 이혼서류를 접수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이혼관념의 영향 외에 당시 법률이 이혼에 대해 잘못 파악해 이혼 안건을 처리할 때, 부녀자의 권리를 보호에 편중된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1980년 이후 새로운 《혼인법》에서는 남녀 이혼의 자유를 강조하고 부부 감정이 틀어지는 것도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혼수속도 훨씬 간편해졌다.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고

쌍방이 동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의 문제에 쟁론이 없을 경우, 두 사람이 혼인 등기소에서 수속만 하면 된다. 만약 한쪽이 이혼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중재를 해도 소용이 없고 쌍방의 감정이 깨졌다고 확신할 때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당사자와 사회 모두 정신 상태에서 심리상태까지 이혼을 감당할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불명예’, ‘체면손상’ 등에 대한 두려움도 적어졌다. 따라서 이혼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베이징의 예를 보면 1979년 법원에 접수된 이혼서류는 3,845건에 달했으나 1983에는 7,885건으로 늘어나 105%의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몇 년 이혼상황에는 대체적으로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는 문화대혁명 기간 중에 결혼한 젊은이들로, 이들의 연령은 35~40세 정도이고, 결혼한 지 십여 년 정도인 부부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받아 출신 성분, 정치적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문화수준, 경제조건, 취미, 성격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근 십여 년 사이 경제관념의 영향을 받아 배필을 고를 때 경제적 요소를 우선시하여 성격, 감정 등을 중시하지 않아서 결혼 후 쌍방의 마음이 맞지 않는 걸 깨달은 이들로, 연령은 대체로 30세 정도이고, 결혼 3~5년차 되는 경우다. 세 번째는 연령층이 50대, 결혼한 지 2~30여년 된 이들로 과거 오랜 세월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을 요구했으나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전통사상의 영향으로, 체면을 생각해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 경우였으나 현재는 관념이 바뀐 것이다. 1991년 베이징(北京)시 100건의 이혼서류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당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40세이며 전체의 55%를 차지하였다. 그 중 여자 측이 이혼을 제기한 경우가 남자측보다 높았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휴부(休夫)’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견해와 방법은 6,70년대와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한 쪽이 이혼을 제기할 때 다른 한 쪽은 반대의 태도를 취해 상대방과의 이혼을 10~20년을 끌기도 했다. 그들은 ‘네가 나를 못살게 굴었으므로 나도 너한테 고통을 준다’는 생각으로 정신적, 현실적인 고통으로 상대방을 벌하려 했다. 현재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진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아져서, 질질 끌며 이혼을 하지 않는 건 둘 다 고통이라 여겨 합의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결혼 3~5년차, 25~30세 정도의 사람들이다. 직업으로 살펴 보면 근로자가 가장 많다. 이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비교적 빨리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의 이혼을 한 사람들 중에는 이혼 수속을 마친 후 둘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은 지인들을 집에 초대하여 이혼 사실을 알리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여행을 떠나면서 이를 기념하거나 결혼해서 여행을 가지 못했던 데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 삼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신식이혼’이라 하여 과거 ‘헤어지면 원수’가 되던 관계를 ‘헤어져도 친구’가 되는 관계로 바꾸었다. 과거의 ‘다툼형’ 이혼에 비해 눈에 띄게 진보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혼상황으로 보면 이혼율이 1981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어 아직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다.

## 六. 재가와 재혼

재가(再嫁)는 여자가 다시 한 번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봉건시대 남편이 죽어서 홀로된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을 두고 전문용어로 ‘재초(再醮)’라고 했는데, 그 뜻은 다시 한 번 술잔치를 거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휴처로 인해 버려진 여자가 재가할 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그 당시 재혼은 과부들만 가능하고, 휴처를 당한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없음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는 달라졌다. 남녀 불문하고 사별한 사람, 이혼한 사람들은 모두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틀어 재혼이라 한다.

봉건시대, 과부의 재가에 대한 견해와 방법은 시대마다 달랐다.

진(秦)이전에는 비록 예법에서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그 제약성이 약해 재가가 보편적으로 행해졌다. 진나라 때에 와서 진시황이 과부의 재가를 반대하여 지방 순행에 나섰을 때 세운 비석에 “有子而嫁, 倍死不貞”라고 적었다. 그 뜻은 이미 아들이 있는 과부가 재가하는 것은 죽은 남편에 대한 지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말은 자식이 없는 과부가 재가를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나라 때부터 송나라 때까지 봉건 유생들은 부녀자의 덕과 언행에 대한 내용

을 담는 글을 많이 썼다. 예를 들면 《열녀전(列女傳)》, 《여칙(女則)》, 《여계(女戒)》, 《여효경(女孝經)》 등에서 부녀자가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결혼 후에 ‘일부종사’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제왕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과부의 재가는 흔한 일이었다. 그 예로 한무제(漢武帝)의 고모, 어머니, 누나 등은 모두 과부가 된 후 재가를 하였다. 당나라 공주들 중에도 재가를 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당태종의 여섯 딸과 당고조(唐高祖)의 네 딸이 재가를 하였다. 송대에 들어 영종(英宗)은 왕실의 딸은 재가를 할 수 있으나,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물론 자식도 없는 과부의 재가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민들은 여전히 구시대 풍습을 이어오고 있어 딸이든 며느리든 할 것 없이 남편을 잃은 여자들은 모두 재가를 하였다. 《이견지(夷堅志)·보(補)》편의 기록을 보면 무주(婺州)의 이씨 부인은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모두 재가시켰다.

그러나 과부의 재혼에 대해 송대 성리학자 주돈이(周敦頤), 장재(張載), 정호(程顥), 정이(程頤) 등은 불만을 나타냈는데, 그들은 봉건윤리도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과부의 재혼을 부도덕하고 지조 없는 행위라고 여겼다. 정이(程頤)는 “배고파 죽은 일은 극히 작은 일이지만 정절을 잃는 일은 큰일이다”라며 과부의 재가를 막았다. 이는 곧 정절을 잃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 보다 더하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그는 남자가 과부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것도 반대하였는데, 정절을 잃은 여자를 부인으로 삼는 남자 역시 정절을 잃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후 유학자들은 송나라 성리학자들을 따라 과부의 재가는 정절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생각을 계속 퍼뜨림으로써 서서히 세상의 견해를 바꾸어 나갔다. 그리하여 “한 여자는 두 집안의 밥을 먹지 않는다,” “좋은 말은 고개를 돌려 풀을 먹지 않는다,” “훌륭한 여자는 두 남자를 섬기지 않는다” 등의 속어가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원대 이후, 과부의 재가에 대해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비난이 쏟아졌을 뿐 아니라 수절하는 과부에게는 물질적·정신적인 보상이 따랐다. 예로 명홍무(明洪武) 원년에는 30세 이전에 남편을 잃고도 뜻을 지키고 50세가 지나도 수절하면 정표(旌表)를 하사하고 그 집의 부역을 면해준다. ‘정표(旌表)’는 수절과부의 집 대문 앞에 현판을 달아 주거나 열녀비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법은 수절한 과부와 그 집안을 기림과 동시에 다른 부녀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명·청대에는 열녀 현판과 비(碑)가 많았다.

봉건시대 유생의 눈에는 남편과 사별한 과부가 수절하는 것도 부족하다고 여겨 죽은 남편과 따라 죽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순장은 원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원사(元史), 열녀전(列女傳)》에 소개된 사례만 해도 187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왕비도 있고 일반 백성도 있다. 남편 사후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곧 죽게 되자 먼저 죽은 경우도 있다. 명·청대에는 수절과 순장이 매우 보편적이었다. 청나라 사람이 명사(明史)를 정리하면서 열녀 전기에 소개된 이들이만 명 이상이었다고 했고, 그 중에서 308명을 특히 모범 사례로 꼽았다. 북경에서 전해 내려오는 50개현(縣) 지방지에 소개된 910여 명의 열녀 중 대부분은 남편 사후에 수절하거나 남편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이다. 실제로는 소개된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역사지에는 극소수만이 기록되기 때문이다.

과부의 수절에 대한 낡은 관습은 신해혁명 때에 와서야 심각한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다. 기록에 의하면 신해혁명의 여파로 남부 지역의 여러 성(省)에서는 정절비가 파괴됐으며, 혁명에 참여한 젊은이들은 ‘남자와 여자 모두 재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민간에 떠돌던 ‘초혼은 부모에 의해서, 재혼은 스스로’라는 속어는 처음 결혼은 전적으로 부모의 명령에 따르지만 재가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사회 분위기 상 재가가 그리 쉽지 않은 않았다. 여성들이 재가를 할 때에는 따뜻한 축하와 성대한 결혼식은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심지어는 남자 측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는 재가를 원하는 적잖은 여성들은 선불리 재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고, 그 결과 재가를 하는 여성보다 수절하는 여성이 훨씬 많았다.

1949년 이후의 법률은 과부들의 자유로운 재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1949년부터 1979년까지 삼십 년 동안 재혼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남편이 죽은 후 시댁에서 심하게 학대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재혼하지 않았다. 그 주된 원인은 뿌리깊이 박혀 있는 봉건 관념이었다.

최근 삼십 년 재혼한 사람들의 연령층을 보면, 젊은 층의 비율이 중년층보다 훨씬 높다. 그 이유는 젊은 층의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고, 젊은 층은 사회와 가정의 동정을 얻기도 더 쉬웠다. 설령 여성이라 해도 젊은 나이에 혼자 지내는 건 좋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중년층의 재혼은 사회나 가정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으며, 그들 자신에게도 전통적인 관념이 깊이 남아 있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들의 재혼은 당연시 되었으나, 여성의 재혼, 특히 나이 든 여성의 재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봉건사상의 영향이 비교적 큰 농촌에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했다.

1979년 이후 개혁 개방의 물결에 부딪쳐, 사람들이 사상과 관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재혼에 대한 편견도 약화되었다. 중장년층의 재혼도 점차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았고, 각 지역에 중장년층을 위한 재혼전문 소개소들이 문을 열었다. 베이징에 소재한 한 결혼 소개소는 개업한 지 일 년 만에 1300여명이 몰려들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이었다. 십 년 사이 재혼 커플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상황별로 눈에 띄는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40세 이하 여성의 재혼율은 동년배 남성보다 높은 반면, 40세 이상 여성의 재혼율은 동년배 남성보다 낮으며 특히 나이 든 여성일수록 재혼율이 낮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접수한 남녀 노인의 비율 6:1인 결혼 소개소도 있고, 9:1인 곳도 있으며, 3:1인 곳이 가장 많았다. 노년 여성들의 재혼이 적은 주요 원인은 봉건사상의 잔재로 인해 노인이 재혼을 하는 것을 “품행이 올바르지 못하고 방탕 하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자녀들의 편견은 더욱 심하다. 어떤 이들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 계신 다른 한 부/모의 재혼을 받아 드리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며, 또 어떤 이들은 부모의 재혼이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자식들은 부모의 재혼을 찬성하기보다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는 농촌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농촌에서는 부모와 다투거나 부모에게 욕설과 폭력 휘두르거나 부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결혼을 막기도 했다. 화가 난 노인들은 “과거 부모가 독단적으로 자녀의 혼사를 정하는 것은 잘못됐고 현재 자녀가 부모의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옳으나”며 울분을 터뜨린다. 둘째로는 재혼 부부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재혼한 노년 부부의 이혼율은 더욱 높다. 1983년 상하이 창닝(長寧)구 관련 부서의 조사에 의하면 재혼 부부의 이혼율은 초혼 부부의 이혼율보다 40배가 높다. 게다가 재혼 기간이 짧고 이혼 속도는 빠르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여기에는 상대의 취향이나 취미, 습관, 성격 등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 자녀들의 지나친 간섭으

로 헤어지기도 하며, 재산이나 저축 등 경제문제가 불거진 경우, 결혼 기반이 약하거나 감정이 깊지 않아서 헤어진 경우 등이 있다. 비록 재혼에 많은 장애가 존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첫 발을 내딛었다. 우리는 봉건적인 윤리도덕 결혼 관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덕관념과 혼인 관념이 확립됨에 따라 재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 七. 중매인의 역할과 폐단

봉건시대의 혼인은 중매인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중국 전통 혼인 풍습의 하나로 예로부터 이를 두고 중매 풍속이라 했다.

홍낭(紅娘), 월하노인(月下老人), 소개인(介紹人) 등은 모두 중매인을 일컫는 명칭이다.

중매 풍속은 혼인 성사의 수요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폐쇄된 봉건사회에서는 봉건예법의 제약으로 인해 남녀가 서로 단절된 채 지냈으며, 집안끼리는 친척과 교우 관계를 제외하고는 왕래가 드물어서 중매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혼인이 성사되기가 매우 어려웠다.

중매 풍속은 봉건예법에서 인정된 방법이다. 《예기(禮記)》에서는 중매인이 없이는 혼인이 성사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맹자(孟子)》에서도 부모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중매인의 소개를 통하지 않은 남녀 간의 연애는, 둘만이 즐기는 밀회와도 같은 것으로 부모와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중매인의 소개는 당시 혼인 풍속의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봉건 윤리도덕의 중요한 요소다. 또한 ‘중매인의 소개’와 ‘부모의 명령’을 같이 논한다는 것은 당시 중매인이 혼인 성사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며, ‘부모의 명령’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니므로, 둘 중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당나라 법률에는 “爲婚之法, 必有行媒”라고 나와 있다. 그 뜻은 보면 혼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 반드시 중매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당대 이후 역대 법률의 내용도 대부분 비슷하여 ‘중매인’이 혼인에 반드시 필요한 지위와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민간에서는 중매인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서 성사된 혼인을 ‘명매정취(明

媒正娶)라고 했는데, 이 ‘명매정취’를 통해 혼인한 여자는 후에 이를 근거로 자신의 정숙함과 순결, 혼인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반대로 ‘명매정취’를 통한 혼인이 아닌 경우는 ‘떳떳하지 않은 혼인’으로 매도되어, 가족과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 세인들의 멸시를 받아야 했다. 특히 여자는 죽을 때까지 천대를 받으며 음탕한 여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고, 땅에 중매쟁이가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전해내려 온다. 중매인의 소개로 이루어진 결혼은 하늘에 구름이 끼서 비가 온 것처럼 당연한 이치이며, 중매 풍속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법률화되고, 습관화 되었다.

봉건시대의 중매인은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집안의 친척과 친구이며, 다른 하나는 전문 중매인이다. 친척과 친구들이 중매를 서는 것은 관심과 도움에서 나오는 것으로 남녀 두 집안과 두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직업적 중매인은 이와 다르다.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주요 목적인 일종의 혼인 상인이며, 그 중에는 악덕 상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술수를 써서 양쪽 집안을 모두 속이거나 둘 중에 한 편을 매수하여 나머지 한 편을 속인다. 때로는 장애인을 건장한 사람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품행이 불량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못난이를 미녀로 속이는 등 돈을 벌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 내기도 하면서 속임수를 일삼는다. 그 중에는 심지어 어느 한 집과 결탁하여 맞선을 볼 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어 상대방을 속인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 없는 일은 고전소설과 희극에 자주 묘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는 “혼인의 좋고 나쁨은 완전 중매인의 입에 달려 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여기에 혼인 과정에서 중매인의 미치는 영향이 잘 드러나 있다.

중매 풍속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구시대의 ‘중매인의 소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대의 중매인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당사자와 잘 아는 사이의 가족, 친지, 친구, 스승, 동창, 고향 선후배, 동료 직원, 이웃 등이며, 다른 하나는 혼인 소개소와 신문, 잡지, TV등 언론매체의 공개구혼 광고이다. 이 두 부류의 중매인은 모두 당사자의 혼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여 당사자에게 만족스러운 배필을 찾아 주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긴다. 이들이 당사자에게 어울리는 상대를 모색할 때에는 각자의 가정 및 개인의 상황을 상대

방에게 사실 그대로 소개하고, 스스로 충분히 고려하고 선택하도록 한다. 쌍방이 서로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 후에는 당사자들끼리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 과정에서 중매인은 중간에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고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 성사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성사가 된다면 남녀 쌍방은 선물을 준비해서 중매인에게 감사를 표시한다. 결혼할 때에는 중매한 사람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중매인도 결혼 축하 선물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 중매인의 역할은 단지 남녀를 소개하고 양쪽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 혼인 소개소와 라디오, 신문, 방송국 (등의 구혼광고)은 비록 소정의 비용을 받긴 해도 남녀 서로 간의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러한 소개는 공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폐쇄적이고 비공식 소개와는 완전 상반됨을 알 수 있다. 공개구혼은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개구혼이 등장한 초기에는 일각에서 비난이나 조소를 받기도 하고, 심하게 매도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이해를 받고 있어 점점 배우자를 찾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물론 결혼 중개소를 통한 결혼을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결혼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단점이 존재한다. 남녀는 처음부터 배우자 선택을 목적으로 하여 대개는 만날 때마다 상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애정이 생겨나고 발전하는 과정이 그다지 자연스럽게 않으며,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중에는 끝까지 감정이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혼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상하이 루완(盧灣)구청에서 처리한 121쌍의 합의 이혼 커플 중 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커플은 전체 60.3%에 달하는 73쌍이었다. 이는 결혼 소개소에 의해 배필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자연스런 만남의 기회가 적고, 대다수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고를 수 없어서 중매인 등의 소개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두 종류의 중매 방식은 비록 자연스런 결혼 방법보다는 못하나 결혼 성사에 상당한 역할을 발휘하므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마 상당히 긴 시간동안 존재할 것이다.

## 제 9 장 가정 가족 편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이다. 또한 사회 풍습의 발원지이자 계승단위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사회 풍속을 이해하려면 가정 풍속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 봉건시대의 봉건 가정과 오늘 날의 현대 가정은 모두 중국의 특색을 지닌다. 이런 특색은 가정의 기능, 구조, 생활방식, 구성원 간의 관계, 예절, 가풍, 가문, 가정교육, 가법, 가장, 가규, 사당, 가보 등의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 一. 가정의 기능

중국 봉건사회는 자급자족의 자연 경제 사회이며, 생산의 주목적은 교환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었다. 생산은 가족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주요 생산 활동들은 모두 한 가정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 가족이 함께 일을 하고 외부인과는 분리된다. 이를 두고 가정 자연경제라 일컫는다. 생산, 그 중에서도 물질의 생산은 가정의 첫 번째 기능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농업국가인 중국은 농업생산이 가장 우선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수공업생산이다. 한 가정을 놓고 보았을 때, 자신들에게 필요한 농산품을 생산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은 수공업품의 생산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농사, 여자는 옷을 짓는(男耕女織)” 가정은 고대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이었고, 정신문화 활동을 하는 부류는 극소수의 유생들뿐이었다. 물질 생산은 모든 가정의 공통된 임무였다. 그러나 당시 생산 도구는 발달하지 않았고, 일손의 많고 적음이 생산의 효율에 결정적 작용을 했다. ‘사람이 많으면 일하기가 수월하다(人多好干活)’는 말은 사람이 많아야 재산도 늘어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인구 증가의 필요성이

생산으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역대 봉건 제왕들에게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당시 봉건왕조가 실시한 “가천하(家天下)”제도는 국가 전체가 황실 일가족의 소유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위 계승자 이외에 다른 아들에게는 각자 봉토가 분배되었다. 황제의 아들이 많다는 것은 황제가 직접적으로 통제와 관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뜻이며, 황제의 통치를 공고히 하는 작용을 했다. 그러므로 대개 역대 황제들이 자녀를 가장 많이 두었다. 송나라 때 휘종(徽宗)은 6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31명이 아들이었다.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아들이 26명이었고, 청나라의 강희(康熙) 황제는 35명이었다.

중국 봉건 시대에는 자손을 낳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대를 잇기 위해서였고, 자손의 출산과 가문의 존속을 연결시켜서 보기 때문이다. 자손을 낳지 않을 경우, 집안을 이을 후계자가 없게 되고, 자손을 적게 낳을 경우, 식구 수가 적어져 한 가문이 쇠퇴되거나 심지어 소멸할 수도 있다. 반면 가족 수가 늘어나면 가문은 계속 유지되는데, 이는 선조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 존재를 이어 나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유교에서는 이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여겨, “세 가지 불효 중 자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不孝有三, 無後爲大)”라고 하여 후손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 여겼다. 사람들은 ‘불효’라는 죄명을 피하기 위해 자녀 출산을 가정 최고의 대사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결혼의 유일한 목표로 여기기도 했다. “자식이 많으면 복도 많다”, “자식이 있으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아들을 일찍 낳으면 복도 일찍 받는다” 등과 같은 관념은 오랜 세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자식을 낳지 못하거나 딸만 낳아 조상의 제사를 지낼 후손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죽어서까지도 한이 되었다. 자손이 많아 가족 규모가 커지면, 집안의 힘도 강해져서 남들도 함부로 멸시하지 못했다. 반대로 자손이 적어서 규모가 작고 힘없는 집은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가족의 생존과 발전 역시 다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역대 봉건왕조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했다. 인구가 많으면 평상시 부역에 동원하고 전시에 병력을 충당할 백성이 그만큼 많아진다. 그 예로 한(漢)나라 고조(高祖) 유방(劉邦)은 일찍이 아들을 기르는 자는 2년 동안 노역을 면해 준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북위(北魏) 회린왕(淮臨王) 때는 징벌정책을 사용했는

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도 첩을 얻지 않은 자는 불효라 하여 처벌했고, 그 아내와 떼어 놓았다. 유교의 출산 관념과 국가의 출산 정책으로 인해 자녀 출산은 줄곧 물질생산에 이은 중국 봉건가정의 두 번째 기능으로 자리했다.

봉건가정의 세 번째 기능은 소비이다. 소비와 생산은 밀접하게 연관되고, 대부분 가정의 생산은 주로 물질에 관한 것이었다. 생산력이 낮은 환경에서는 극히 간단한 형태의 물질적 소비가 이루어질 뿐이었다. 특히 대다수 백성들은 정신적인 소비를 엄두도 못 내고, 혼례나 장례, 명절 때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장터에서 민간예술인들이 연출한 기예를 관람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물론 부유층은 이와 달리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 “술과 음식이 넘치면 생활은 방탕해진다”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배불리 먹고 마신 후에는 새 기르기, 장기와 마작, 공연 관람, 악기 연주, 그림 등을 즐겼고, 심지어 일부 집안에서는 전용 극단을 마련하여 《홍루몽》의 가(賈)씨 집안처럼 해마다 명절이나 경사가 생길 때마다 잔치를 벌이고 공연을 보며 즐겼다. 그러나 물질적, 정신적으로 모두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집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 가정의 정신생활은 상당히 빈곤했다. 따라서 고대 서양 가정의 사교 모임, 무도회, 음악회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생활과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어떤 이들은 중국 봉건가정은 소비형 가정이 아닌 생산형 가정이라고 했는데,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다.

중국 봉건가정의 또 하나의 기능은 전체 가족 구성원들에게 봉건적 윤리관을 주입시키고 문화 및 지식과 생산 기능을 전수하는 일이다. 윤리도덕 관념은 가정의 도덕적인 옳고 그름 및 가정의 안정과 관련이 되며, 전 사회의 도덕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가정이 가족 구성원에게 봉건적 윤리관을 주입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 二. 가정구조

중국 봉건가정 구조의 뚜렷한 특징은 몇 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식구가 많으며,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몇 대 심지어는 십여 대 이상, 몇 십 명 혹은 몇 백 명이나 되는 식구가 함께 살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집안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집안이 잘 다스려지고, 상하의 도리가 잘 지켜지며, 행복하게 지내는 가정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대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무한한 영광과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남북조 시대부터는 이런 대가족을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충신, 명장, 효자, 절부, 열녀 등과 함께 사서(역사책)에 기록하고 세인들의 본보기로 삼았다. 수당(隋唐)시기에는 4, 5대가 한 집안에 사는 대가족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9대가 한 집에 사는 경우도 있었다. 《구당서(舊唐書)》에 등장하는 장공예(張公藝)의 가족은 9대가 함께 살았고, 이는 여러 왕조의 포상을 받았다. 당 고종이 태산으로 가는 도중에 장씨의 집에 들러 9대가 같이 사는 비결을 물었다. 그는 ‘인(忍)’자를 써서 천자를 감동시켰고 많은 하사품을 받았다. 송(宋)대 이후 이런 대가족의 수가 늘어나고, 나아가 세대 수도 늘었다. 기록에 의하면 신주(信州)에 사는 이림(李琳)은 15대가 같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중(河中) 영락(永樂)에 사는 요(姚)씨 집안은 13대가 한 집에 살았는데, 300여 년 동안 식구 수는 100여 명이 유지되어, 몇 차례의 전란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았다. 물론 수백 년간 대가족을 유지하는 집안은 극소수이며, 나라에서 표창한 가족을 보면 대개는 3대, 4대가 보편적이었다.

여러 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 어떻게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간 유지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효제(孝悌)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 윤리와 이를 바탕으로 제정된 봉건 가례(家禮)가 커다란 공헌을 했다. 이 밖에 경제적인 기반도 중요하다. 몇 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은 일정한 경제적 능력 없이는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권문세가나 명문 귀족 집안은 대체로 대가족이 많았던 반면, 궁핍하고 가난한 백성들은 2-3대, 스무 명 미만이 모여 사는 소가족이 많았다.

### 三. 봉건가례(封建家禮)

중국 봉건가정의 예의규범은 가정 구성원의 서열을 나누고, 언행을 규정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봉건가정은 구성원이 많고 서열과 나이, 성별, 지위 등이 다양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각자의 지위는 어떻게 확정되는가? 이는



종적인 구분 방법과 횡적인 구분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종적인 구분의 근거는 “항렬(行列)”로, 항렬이 높을수록 지위가 높다. 횡적 구분, 즉 항렬이 같을 경우 지위 구분의 근거는 성별과 연령이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연령이 높은 사람이 지위가 높다. 지위 고하에 따른 관계는 명령과 복종 관계이다. 이로써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피라미드 형 등급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봉건가계의 구분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첫째, 가정 내에서 각 구성원의 위치를 분명히 하여, 식구가 수십 혹은 수백 명씩이나 되어도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둘째, 명령과 복종 관계로써 집안의 모든 구성원을 가족 관계라는 그물에 단단히 묶어 놓는 역할이다. 이는 봉건가정의 안정, 국가의 안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세계 각국의 봉건 가정 중에서도 유일무이하다.

중국의 봉건가계는 유교에서 만들어졌다. 주지하다시피 유교는 중국 봉건사회의 통치 사상이었다. 나라와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와 관련해 유교는 예(禮)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즉 봉건시대의 예에 따라 귀천과 상하를 구별하고, 지위를 바로잡는 이러한 방법의 영향으로 집안의 구성원들은 가장의 명령을 따랐고, 신하는 황제에게 복종했다. 역대 통치자들은 “예로써 가정을 다스리고, 예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사상을 중시했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예의를 최초로 설명한 《예기(禮記)》, 《의례(儀禮)》, 《주례(周禮)》 등 서적은 특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널리 알려졌다. 역대의 명문세가들은 이 책들의 내용에 따라 자신들의 가례를 제정하여 온 집안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했다. 그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복잡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장과 식솔

가장은 한 집안의 주인이다. 봉건가정의 가장은 집안에서 항렬이 가장 높은 남자가 맡는다. 조부가 살아있으면 조부가 가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부친이 가장이 된다. 가장은 집안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릴 뿐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행사한다. 가장은 집안의 전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 식구들의 운명을 지배하고 결정한다. 또한 가례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한 권한도 갖고 있다. 가족(家屬)은 가장을 제외한 집안의 구성원들을 가리킨다. 집안에서 가장 이외의 사람을 식

술이라 하며, 식솔은 가장을 존경함은 물론 가장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가장의 명령에 대해 조금도 어긋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가장은 식솔을 통치할 자유가 있지만 식솔들이 가장에게 불복할 자유는 없었다. 물론 가장으로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가족을 질서정연하게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나름대로 방법이 필요했다. 송(宋)나라 덕안(德安)지방의 진방(陳昉)은 자신이 가장일 때, 13대 700여 명이 함께 살며, 자급자족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은 진씨의 집안을 다스리는 방법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온 집안 식구를 모아 놓고 서열에 따라 앉혔는데 그 목적은 각 구성원들이 집안에서의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되새기고 자신의 언행을 돌아봄으로써 예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 2.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는 혈연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이다. 봉건가례에 의하면 자녀는 부모의 사유재산이며 부모는 자녀의 직업, 혼인을 포함한 일체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자녀를 처벌하거나 매매, 유기, 살해할 권한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극소수이다). 유교에서 말하는 “부위자강(父爲子綱)”은 자식이 절대적으로 부모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죽으라고 하면 자식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친다.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효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여행가서는 안 된다.” 이는 부모를 곁에서 봉양하는 것을 책임으로 알고 부모의 음식과 일상생활을 잘 돌봐야 함을 뜻한다. 또한 부모가 병들면 속히 약을 지어드려 병이 낫게 해야 한다. 역사에서 전해지는 “할고요친(割股療親)” 이야기는 자식이 부모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 살을 도려내어 국을 끓여서 부모에게 먹였다는 내용으로, 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장례를 치르고 상복을 입고 행동을 삼가야 한다. 둘째, 자식의 신체는 부모로부터 받았으므로 이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하고 몸에 해로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것도 효도에 위배되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셋째, 가족의 번성과 조상의 제사를 위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

### 3.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는 혼인관계의 의해서 확립되고 생겨난 것이다. 본래는 평등한 이 관계는 봉건예교에서 왜곡되고 말았다. 아내는 남편의 사유재산이며 남편은 아내를 처벌할 수 있었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친정으로 돌려보내거나 타인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었다. 반면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고 일체를 남편에게 맡겨야 했다. 이를 두고 유교에서는 “부위부강(夫爲婦綱)”, “부창부수(夫唱婦隨)”라 한다. 부부간의 예의는 모두 아내가 지켜야 하는 덕목을 규정한 것이며, 평소에 남편을 잘 섬길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재혼하지 않고 수절하여 절부가 되거나, 남편을 위해 순장하거나 열녀가 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에게 첩을 얻도록 권하여 남편이 자손을 잇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첩이 있는 가정에서 첩의 지위는 남편뿐만 아니라 본처보다도 낮기 때문에, 남편과 본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다. 《홍루몽》 중의 가련(賈璉)의 첩 이평아(李平兒)는 하루 온종일 가씨 부부의 시중을 들었고, 때때로 그들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도 반항하지 않고 참아야만 했다. 첩이란 정식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했고 단지 부부의 종에 불과했다.

### 4. 형과 아우

아들이 많은 집에서는 여러 형제가 한 부모 밑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같은 경우, 본처 소생인 경우, 후처 소생인 경우 등 다양했다. 봉건가례에 따르면 본처가 낳은 자녀의 지위가 첩이 낳은 자녀의 지위보다 높고, 그 중에서도 본처가 낳은 적장자(嫡長子)의 지위가 가장 높다. 한 부모 소생인 경우, 장자의 지위가 가장 높고, 나머지 형제는 나이에 따라 서열이 매겨진다. 부친이 살아 있을 때 장자의 지위는 부친 다음이며, 부친이 작고하면 장자가 부친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만약 황가 및 왕가, 관료의 집안이면 적장자 혹은 장자가 법적인 계승자가 된다. 형제간의 예법은 “형인제제(兄仁弟悌)”라 하였다.

“형인”이라는 것은 형이 아우에게 어질고 관대하며, 아우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제제”는 아우가 형에게 복종하고 형을 존경한다는 뜻이다. 봉건왕조에서 “제제”에 대해 포상한 사례를 보면, 병에 걸린 부모를 모시듯 병든 형을 돌본 경우, 형의 후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를 포기한 경우, 형을 존중하여 자산 계승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 있다.

## 5. 남녀 관계

봉건가정에서는 남녀도 지위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가정 관리에 참여할 권한이 있으나 여자는 없었다. 또한 남자는 가산을 이어받을 수 있었으나, 여자는 그렇지 못했다. 여자는 결혼 전에는 부친에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 사후에는 아들에 순종해야 했다. 그 밖에 봉건가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남녀 유별의 예를 규정하였다. “남녀는 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男女不同席)” (남녀는 한 자리에 앉아 같이 식사를 할 수 없다), “남녀는 섞여 앉지 않는다(男女不雜坐)” (남녀는 함께 앉아 얘기를 나눌 수 없다), “남녀는 함께 걸지 않는다(男女不同行)” (남녀는 함께 길을 다닐 수 없다), 남녀는 물건도 함께 사용할 수 없었고, 옷도 한 옷장에 넣을 수 없었다. 여자의 언행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길을 걸을 때 두리번거리지 말 것, 웃을 때 이를 보이지 말 것, 앉을 때 다리를 떨지 말 것, 서 있을 때 치마를 만지작거리지 말 것, 말할 때 큰소리 내지 말 것,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단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 등이 있다. 미혼여자가 방이나 집 밖을 나서는 것에는 제약이 따랐고, 약혼한 여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약혼자를 만날 수 없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 이외의 남자는 만날 수 없었고 시동생과의 대화도 금지되었다. 이를 어기면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자로 취급받았다. 여러 모로 여자의 지위는 남자에 비해 보잘 것 없었다.

## 6. 고부 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여자지만 서열이 다르므로 그 지위도 큰 차이가 있다. 봉건가례에 따르면 며느리는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복종해야 한다. 특히 집안일을 할 때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고분고분해야 하며, 반항

할 수 없다. 행여 시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르면 욕설과 매를 각오해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매를 맞더라도 반항할 수 없었으므로 봉건시대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리는 일은 매우 흔했고, 오히려 며느리가 매를 맞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나라의 포상을 받은 효부 중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을 받더라도 효를 행한 이도 있고, 시어머니가 병중일 때 다리 살을 베어 병을 낫게 한 이도 있으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상을 정성스럽게 치러낸 이도 있다. 이는 모두 며느리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시어머니의 지위를 지켜낸 예들이다.

상술한 여섯 가지 외에 주인에 대한 하인의 예의가 있다.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가깝다 하더라도 하인의 지위는 비천했으며, 무조건 주인의 말에 따라야 하고, 존비의 예는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가례는 제정된 이상 지켜야 하는데, 집집마다 상황이 달랐다. 예를 들어 미혼 여성은 집밖 출입이 통제되었으나, 가난한 집에서는 이를 지키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가난한 집의 가례는 부유한 집의 가례보다 간소했다. 그러나 빈부를 막론하고 가례를 어긴 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은 엄중했다. 처벌 방식으로는 훈계, 무릎 꿇리기, 벌금에서부터 매질,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그 방법에는 자살강요, 매달아서 구타, 강이나 호수에 익사시키기, 가문에서 추방 등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례는 가법(家法), 가규(家規), 가계(家誡), 가약(家約) 등으로도 불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성을 말살하는 것이며, '사람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봉건가례의 내용을 보면 봉건국가의 예의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봉건 윤리가 집안에서 구현되는 것이며, 봉건 법률이 집안에서 운용되고 확대되는 것이다. 그 목적은 봉건가정에서 효자와 현모양처를 길러내는 것을 봉건왕조에서 충신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확대하여 통치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이는 개인의 의지와 언행의 자유를 박탈하고, 개성을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양과 비교했을 때 서양의 가정은 구성원들의 관계가 평등하고, 개인의 지위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편이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 봉건가례의 가장 낙후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중국 봉건가정이 추구한 은 집안의 단결과

화목, 그리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전통적인 미덕이 서양보다 훨씬 강조되었다는 점 역시 중국과 서양의 차이점이다.

#### 四. 가정교육과 가산(家産)

중국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은 집안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상, 인품, 지식, 재능은 대부분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된다. 당시 가정교육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오늘날보다 훨씬 컸다. 따라서 옛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매우 중시했다. “기르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다.” 중국에서 수천 년간 전해지는 이 말은 자식 교육에서 부모가 지는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봉건시대의 가정교육을 살펴보면 몇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다.

##### 1. 인품과 덕성 교육을 우선시 한다

인품과 덕성교육의 내용은 유교에서 가르치는 봉건도덕규범과 윤리관계이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규범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꾀했다. 가장 흔하게는 《논어(論語)》, 《맹자(孟子)》, 《상서(尙書)》, 《효경(孝經)》 등을 교재로 삼아 공부하는 것이다. 자제를 위해 “가훈”, “가교(家敎)” 등과 같은 교재를 쓰는 이들도 있었는데, 안지추(顔之推)의 《안씨가훈(顔氏家訓)》, 주백려(朱柏廬)의 《치가격언(治家格言)》 등이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은 24명의 효자 이야기를 편집한 《24효(二十四孝)》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따르게 하였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사상과 고사(故事)의 영향을 받았다.

##### 2. 지식, 기능의 양성을 중시하다.

각 가정마다 지식과 기능 수양에 대해중요시하는 측면이 달랐다. 명문세가에서는 자제들에게 문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손수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서당을 세워 문인들을 초빙해 수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

은 관에서 운영하는 서당이나 개인 서당에 자식들을 보내 교육을 받게 하기도 했다. 그 목적은 자식들이 벼슬길에 나아가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여 조상을 빛내고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다.

평민들의 경우, 집안의 연장자들은 대부분 글자를 몰랐고, 자식들을 가르칠 형편도 되지 않아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 일을 하면서, 연장자의 언행을 통해 사람의 도리와 집안을 꾸려 나가는 기술을 익혔다. 농부는 자식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고, 수공업자는 자식들에게 수공예를 가르쳤고, 무술을 하는 집에서는 무술을 가르쳤다. 부친이 자신이 종사하는 일이 힘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스승에게 보내어 다른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 3. 남녀가 받는 가정교육의 내용이 다르다

교육에서의 남녀의 차별은 주로 교육의 내용에 있다. 즉 지식, 문화, 기능 등의 교육은 주로 남자들에게 행해졌고, 여자들에게는 이러한 교육이 금지되었다. 흔히 하는 “남자에게 전수하고, 여자에게는 전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자에 대한 유교의 교육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유교에서는 여자는 재능이 없는 것이 덕이며, 여자들의 본분은 어른을 잘 모시는데 있다고 여겼다. 여자들은 지식과 문화를 익힐 필요가 없고, 부녀자의 덕을 배우는 것으로 족했으며, 남편을 잘 섬기고, 아들을 낳고, 집안일만 잘하면 그만이었다. 여자가 글을 많이 알면 오히려 분수에 맞지 않고, 백해무익하다고 여겼는데, 이는 전적으로 여자를 우민화(愚民化)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런 불평등한 우민화 교육은 중국에서 이천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이천년 동안 평민 여자는 물론 대갓집 규수조차도 글자를 거의 몰랐고, 극소수의 관료나 교육자 집안의 여식만이 문화지식을 일부 배울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대 문인학자 중에 여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사해(辭海)》 문학편에 수록된 786명의 고전문학 작가 중에 여성은 2%가 좀 넘는 17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 유명한 여류작가는 한 두 명뿐이라 안타까울 따름이다.

기능을 배우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딸에게는 부모가 종사하는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기술은 남자들의 일이니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술이라면 딸에게 배우는 것은 물론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딸이 시집간 후에 다른 집안사람들에게 기술을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여자는 어머니를 따라 바느질, 자수 등의 집안 일만 배울 수 있었다. 가난한 집안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딸에게 방직, 누에치기, 농사 등의 기술을 가르쳤으며, 이는 능력을 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였다. 대갓집 규수 중에는 음악이나 그림을 배우는 이도 있었지만, 이 역시 예술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무료함을 달래거나 남편과 시부모를 모시기 위한 경우에 불과했다.

여자들에게 덕만을 강조하고 여자들의 재능을 가버이 여기는 생각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일부 낙후된 지역에 남아 있다. 부모들은 여자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고 그저 글자나 몇 개 알면 된다고 생각하여 딸에게 공부를 조금만 시키거나 아예 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적으로 문맹과 반문맹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 4. 교육방법이 다양하다

옛 어른들은 가정교육뿐 아니라 그 교육방법도 매우 중시하였다. 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을 일찍 시작했다. 위진(魏晉)시대 이전에 이미 '태교'라는 말이 있었다. 《안씨가훈(顔氏家訓)》에는 “고자성왕(古者聖王)의 태교방법에는 임신 3개월이 되면 별채에서 거처한다. 나쁜 것을 보지 않고, 망령된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말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절에 맞도록 한다”고 나와 있다.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생긴 지 3개월부터 태교가 시작된다는 말인데, 정말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사물을 빨리 받아들이고, 어릴 때에 성격이 습관으로 굳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가르쳤다. 아기 때는 좋고 나쁨을 가리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언행이 가장 좋은 모범이 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들이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효과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공자의 제자 증삼(曾參)은 항상 언행일치를 실천하면서 자식을 가르쳤다. 하루는 증삼의 부인이 울음



을 그치지 않는 아들에게 “울음을 그치면 돼지를 잡아서 요리해 주마” 라고 하니 까 아들이 울음을 그쳤다. 이에 증삼이 한 마리뿐인 돼지를 죽이려 하자 부인은 “아이를 달래려고 그냥 해 본 말인데 정말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면서 증삼을 말렸다. 그러자 증삼은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오. 거짓말로 아이를 속이면 나중에 아이가 당신을 어찌 믿을 수 있겠소?” 라고 하며 돼지를 죽였다. 셋째, 대상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달리했다. 공자는 제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중요하게 여긴 최초의 교육가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춰 교육을 실시했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명대의 유명한 의학자이자 약물학자인 이시진(李時珍)은 의원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산에 가서 여러 가지 약초를 캐면서 놀았다. 당시에는 의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으므로 부친은 아들이 의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아들에게 글공부를 시켰다. 그러나 아들이 너무나 의원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아들에게 의학지식을 가르쳤다. 훗날 이시진은 유명한 의원이 되었음은 물론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집필하여 중국의 의약학에 위대한 공헌을 하였다. 넷째, 주위 환경과 주변 사건의 영향을 중시하였다. 환경과 사건은 “무언지교(無言之教)”라 하여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작용을 하며, 이 점은 옛 사람들도 오래전부터 인식해 왔다. 좋은 환경을 찾아서 동네와 이웃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맹자의 모친은 아들을 데리고 세 번이나 이사를 한 끝에 서당 근처에 거처를 정한 일은 지금까지 미담으로 전해진다. 그 목적은 아들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주기 위해서였다. 후에 맹자는 학문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중국 제2의 성인(聖人)이 되었다. 위에 언급한 몇 가지와 더불어 특별한 방법이 더 있다. 예를 들면 남송(南宋)시대의 민족영웅인 악비(岳飛)의 모친은 악비의 등에 “정충보국(精忠報國)”이라는 네 자를 새겼다. 글자를 새기면서 어머니의 애국심을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것이다. 악비는 모친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훗날 가장 존경받는 민족영웅이 되었다.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자식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다. 교육 내용에서는 공자 숭상과 경서 읽기를 주로 하고, 자연 과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 방법에서는 책 속의 지식을 무조건 외우게 하는

식이었다. 아이들에게 노동 기술을 가르칠 때는 그저 장인들의 행위와 동작을 따라하게 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술이나 공예를 연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은 책에 나온 지식만 읊을 줄 알고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사람이 되거나, 낡은 틀에만 얽매이고 모방할 줄만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다. 이 역시 봉건사회에 과학 기술의 발전이 더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가산은 한 가정이 소유한 물질적 부를 가리킨다. 봉건사회에서는 집과 토지 등이 이에 속하며, 이는 한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었다. 가산의 많고 적음은 식구들의 의식주 수준은 물론 사회 내에서의 그 집안의 정치적·경제적 지위를 결정지었다. 가산이 많은 집은 사회적 전가족의 의식주 해결에만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기도 한다. 가산이 많은 집은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가산이 적은 집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아 멸시를 받았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머리를 짜내었다. 당시 모두들 인정하는 방법은 관직을 얻어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벼슬을 하면 지위뿐 아니라 재물도 얻을 수가 있었다. 수(隋)나라 때부터 청나라 말기에 이르는 1300여 년 동안 관료를 선발하기 위한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과거는 높은 관직과 후한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주요 경로로, 과거에 급제한 사람만이 관직을 수여받을 수 있었고, “배워서 뛰어나면 벼슬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었다. 《유림외사(儒林外史)》에서는 보잘 것 없는 범진(范進)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멸시를 받다가 급제하자 사람들은 태도를 바꿔 그를 “어르신”이라 부르고, 지역 관리나 유지들도 그와 교제하기를 원하여 심지어는 땅과 집, 노예 등을 선물하기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도 그다지 쉽지는 않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거나 돈이 있어 공부를 하더라도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게다가 시험장의 그릇된 풍조, 시험 내용과 방법의 부조리, 선발 인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되는 이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후손에게 되도록 많은 가산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은 대대로 중국인들의 소망

이었고, 오늘날에도 보편적이다. 많은 이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가산을 마련하는 이유는 사후에 유산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그래야지만 조상을 위로하고 자손들을 볼 면목이 생겼다. 자손에게 어떤 형태의 가산을 남기는가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달랐다. “재물 남겨주는 것은 책을 남겨 주느니만 못하다”라고 여긴 이들은 자식에게 공부를 시켜 관료를 만드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다. 자식에게 ‘부지런함’을 가르쳐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이들은 물질적으로 유산을 남기는 것에는 반대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재물을 남겨 봐야 소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한(西漢)의 승상(丞相) 소하(蕭何)와 동한(東漢)의 양진(楊震)이 좋은 예이다. 양진은 다년 간 관직에 종사하면서 가산을 늘리지 않았는데, 청렴한 관리의 본모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이밖에 자식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최고의 재산으로 여기는 이들에게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곧 가보를 물려주는 것이었다. 남조(南朝)의 조충지(祖沖之)는 집안의 지식을 전수받아 위대한 역법 수학자가 되었다. 명대(明代)의 이시진(李時珍)도 만약 부친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위대한 의학자와 약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역시 중국 봉건사회 기술이 대부분 집안 대대로 전해질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이다.

자식이 많은 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 가산을 계승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딸에게는 계승권이 없고, 아들에게만 계승권이 있다. 둘째, 아들 중에서도 장자(長子)가 주요 계승자이고 나머지 아들은 그 다음 순위였다. 봉건제왕과 관료 귀족들의 집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했고 또 이 방식은 중국의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하게 내려온 재산 계승방식이다. 셋째는 아들들에게 균등하게 가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송대 이후 대부분의 집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다.

위 세 가지 방식에는 각기 배경이 있다. 첫째는 남녀 불평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남존여비의 봉건가례에 부합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가정이 이를 따랐으며, 농가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 방식이 지켜지고 있다. 둘째는 장자의 서열이 다른 형제들보다 높다는 봉건 가례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런 분배 방

식으로 종종 형제 사이에 갈등이나 다툼이 발생했으며, 심한 경우는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형제끼리 가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형제간의 불평등한 지위등급을 없앤 커다란 사회적 진보라고 말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가정에서 받아들여지는 방법이 되었다.

가산 분배는 종종 분가를 할 때 의논을 통해 결정된다. 가산을 나누는 것은 한 대가족이 몇 개의 소가족으로 나뉘는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분가는 대개 분가의 가장 혹은 집안에서 가장 덕망 높은 어른이나 외숙이 주관했다. 분배 방안이 일단 확정되면 바로 분가 목록을 작성하고 모든 형제와 주관자가 목록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인 관례로 내려왔다.

## 五. 가문과 가풍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혹은 가족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적 특징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학자집안”, “관료집안”, “장군집안”, “의사집안”, “무술명문세가”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봉건사회에서 가문은 존비귀천으로 구분된다. 명문귀족은 사회에서 특수한 지위를 차지하며, 특히 문벌제도가 성행하던 시기에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은 덕이 아니라 가문지위의 고하였다. 이는 소위 “빈천한 집안에는 고관대작이 없고, 명문가에는 말단 관료가 없다”말이 바로 이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적 교류에서 가문의 구별은 사람들 사이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했고 결혼 문제에서도 가문은 첫째 조건이었다. 전통적인 가문 관념으로 인해 문벌세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인재가 묻히는 등,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 발전과 기술 진보의 장애가 되었다. 이런 전통 관념은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에게 깊숙이 작용하여 때때로 인재 등용, 결혼 상대의 선택 등을 좌우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가문을 따지는 것은 사회와 국가, 개인에게는 커다란 해가 된다면서 이를 극도로 혐오한다. 오늘날의 가문 관념은 옛날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다.

가풍은 문풍(門風)이라고도 하는데 한 가정(혹은 가족)에 대대로 전해지는 도덕 준칙과 인품, 처세의 방법을 가리킨다. 한 가정의 가풍은 가정의 모든 구성원의 사상과 행동에서 드러난다. 만약 집안의 한 사람이 가풍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그는 “가문을 더럽혔다”고 비난받을 뿐 아니라 가법(家法)의 처벌을 받아야 했다.

한 가정의 가풍은 온 가족의 노력 가운데 대대로 계승되어 오랫동안 지켜진다. 즉 가풍은 커다란 안정성을 지닌다. 고대 봉건 대가족에서는 가풍을 알리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적지 않은 가정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찬한 가정교육 교과서에서 가풍을 가르치고 지키는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안지추(顏之推)의 《안씨가훈(顏氏家訓)》에도 가풍을 강의한 《풍조(風操)》 편이 있다.

물론 가풍은 각 가정마다 서로 다르다. 송(宋)대의 명장 양계업(楊繼業)의 집안은 대대로 가풍을 계승하여, 나라를 보위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전쟁에 나가 용맹스럽게 싸웠다. 송대 청렴한 관리 포중(包拯)은 후대 자손들이 관료가 되었을 때 만약 독직이나 횡령을 한다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을 불허하고 죽은 후에도 가족묘지에 매장할 수 없다고 유언을 남겼다. 백성을 위해 일을 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는 것이 포중(包拯)의 가풍인 것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가풍이 바르지 않거나 대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집안은 항상 있었다. 비도덕적 행위, 습관성 도박, 절도와 약탈, 낭비벽 등의 좋지 않은 예가 그것이다. 사회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가풍은 경멸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 사회로부터 고립 당했다. 품행이 올바른 집안은 대개 그런 가정을 멀리 하며 왕래는 더더욱 꺼렸다. 반면 가풍이 훌륭한 집안은 존경과 모범의 대상이 되고 그 집안의 가풍은 널리 알려졌다. 중국에서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볼 있는 가풍은 근검절약,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아끼기, 서로 양보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교우 관계에 힘쓰기, 어려운 사람 돕기, 나라와 가정 사랑하기,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 싸움·술·도박·도둑질 하지 않기 등이 있다. 중화민족의 훌륭한 습성은 바로 대대로 많은 집들의 이런 좋은 가풍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

## 六. 족장(族長)과 족친(族親)

서양 봉건시대의 가정은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양쪽의 친척 호칭에도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달랐다. 부계만이 대를 이을 수 있었고, 모계는 성이 다른 사람들이므로 부계 측이 의논하는 일에서 늘 소외되었다. 부계 혈연관계를 지닌 가정들이 모이면 하나의 “가족”<sup>1)</sup>이 된다. 가족은 가정보다 높은 단계에 있으며, 가정은 가족에 복종하고 가족의 관할 아래 놓였다. 이는 서양에는 없는 제도이다.

가족에도 세력에 따른 지위 구분이 있었다. 강성한 대가족은 정치적 지위나 경제력이 우세하고, 구성원들의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가문의 지위와 가족의 위치 또한 높았다. 일부는 한 고장 전체를 관리하기도 했고, 몇몇 힘 있는 가족이 연합하여 조정을 좌우하기도 했다. 반면 지위가 낮고, 가문이 보잘 것 없는 가족은 어느 정도 땅과 재산, 정치적 지위가 있다고 해도 세력 있는 가족들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고, “가난한 집안(寒家)”, “서민 집안(庶族)” 등으로 불리며 배척당했다.

가정에 가장이 있듯이 가족에도 “족장(族長)”이 있다. 족장은 전 가족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가족 전체의 일을 두루 책임지고 관리한다. 보통은 가족 중 연장자나 부유한 사람이 족장을 추천하는데, 족장으로 추천된 사람 역시 가족 중에서 서열이 높고, 나이도 있고, 돈과 세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모두 재산이 많은 지방 유지이며, 평민은 절대 불가능하다.

가족구성원들에게 족장은 종족과 선조의 대표자이자 화신이므로 자연히 경외의 대상이 되며, 가족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족장은 실질적으로 가족 내의 “황제”나 다름없다. 족장의 주요 권력은 다음과 같다: 조상의 제사 의식을 주관하고, 족보를 쓰고 사당관리를 책임지고, 가족의 재산을 주관하고, 가족을 교화시키고, 족규(族規)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가족 내 분쟁을 처리하고, 각종 논쟁을 조율한다. 심지어는 아이 이름 짓기, 자녀 결혼, 장례, 분가, 자녀 입양, 데

1) 중국에서 “가족(家族)”은 주로 “부계 혈연관계를 지닌 가정들이 모인 집단”을 지칭하고 그 범위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좁은 의미의 “가족(부부, 부모, 자식 등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집단)”보다 크다. 본문에서의 “가족”은 전자를 지칭하고, 후자는 주로 “가정”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밝힌다.

릴사위 등의 각종 대사에 관여하고 결정을 내렸다. 가족 내 모든 권한을 손에 쥔 족장은 가족의 실질적 통치자였으며, 그와 가족의 관계 역시 통치와 복종의 관계가 되었다. 모든 가족은 그의 결정에 대해 절대 복종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했다가는 족규에 의해 처벌 받았다.

모든 가족에게는 매우 엄격한 성문 혹은 불문(不文)의 족규가 있어, 구성원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하고, 족장의 권한 행사에도 근거를 제공했다. 조훈(祖訓), 종약(宗約) 등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봉건국가의 법률이 가족에 가까지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그 구성원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역할을 했다.

가규(家規)의 주요내용은 봉건예의와 봉건국가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가족은 황제의 통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고 본분을 지키는 백성이 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족장 혹은 종족(宗族)의 지도자를 추천하는 방법을 규정했다. 셋째, 족장의 특권과 일족 내 각 구성원의 등급, 본분 및 행위 준칙을 규정했다. 넷째, 가족의 근원이 같음을 강조하여 가족 간의 단결과 화목을 요구하고, 서로 돕고 사랑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품행과 도덕, 직업 등에 대해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천한 직업(이발사, 광대 등)”에 종사하는 것을 불허하고, 사치와 낭비, 주정, 싸움, 도박 등을 금하도록 규정했다. 여섯째, 이성(異姓)이 족보에 기재되거나 재산 계승 등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했다. 즉 딸의 자식이나 처가 식구가 족보에 오를 수 없었다. 일곱째, 족규와 가법을 위반하고 가족이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며, 삼강오륜의 풍속을 위배한 이의 처벌 방법을 규정했으며, 처벌은 상황에 따라 경중을 달리했다. 예를 들어 어른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를 잘 모시지 않거나 교훈을 잘 따르지 않거나 게으르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 등은 가벼운 죄에 해당되어, 훈계나 무릎 꿇기, 매 맞기 등으로 다스렸다. 매 맞기에도 구분이 있었다. 처음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10대, 두 번째는 20대, 세 번째는 30대를 때린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을 여러 번 타일러도 고쳐지지 않으면 족보에서 제명시켜 영원히 사당에 들어올 수 없게 한다. 중죄는 부모나 어른을 구타하거나 조상 묘의 매장품을 훔치거나 방화 및 절도를 저지르거나 명령에 반항하거나 윤리를 손상시키는 등 족

규와 국법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로 관청에 넘기거나 족형에 의해 다스렸다. 가장 무거운 족형(族刑)은 사형이었다. 물론 족규에는 족장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다. 족장이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력 남용하거나 무능하면, 가볍게는 족장을 교체하고 무거운 경우는 공론을 거쳐 족장의 지위를 영원히 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개는 족장을 경질시키는 정도에 그쳤다.

규정을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 선조의 유훈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고, 일족 중 유력자가 정하기도 했다. 가족의 상황이 제각각이므로 족규의 내용도 각기 특색이 있다. 유명한 족규는 해당 가족을 넘어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영향을 끼쳤다. 또한 동시대의 가족들뿐 아니라 후대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중국봉건사회가 해체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족규도 있었다.

## 七. 족보와 종사(宗祠)

족보는 온 가족의 변천사를 기록한 한권의 백과사전으로, 종보(宗譜), 보서(譜書)라고도 한다. 봉건시대에는 가족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족보가 있었다.

족보에는 현재의 구성원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과, 자, 호, 배우자, 출생일, 향년, 매장지, 혈통의 근원, 혈연관계와 전답의 수량 및 범위, 족묘(族墓)의 위치, 사당의 위치와 구조, 족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가족 구성원은 남자의 서열에 따라 이름을 올리는데, 처는 남편 이름 뒤에 이름을 뺀 성씨만을 기재하고, 딸도 그 부모와 형제의 이름 뒤에 몇 번째 딸이라고만 기입했다. 족보에는 기재된 내용의 상세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명관, 명사, 충신, 효자, 열녀 등 조상을 빛낸 이들에 대한 사항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었으며, 일부 집안족보에는 이런 사람들의 초상(畫像), 전기(傳記), 저작(著作), 묘지(墓志)등도 수록 되었다. 이는 가문의 명예를 빛낸 이들을 표창하고 후대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초기에는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제외시키는 등 모든 구성원을 족보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되어 모든 구성원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가족의 발전이 계속되면서 족보도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충되었다. 수정은 그



시기가 일정치 않아서 10년에 한 번 이루어질 경우도 있고, 2,30년 만에 한 차례 이루어질 경우도 있었다. 족보를 오랫동안 수정하지 않는 것은 조상에 대한 불효로 비취졌다. 족보를 수정하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일족들에게도 사람을 보내 족보 수정 작업에 참가하라고 통지하였다. 족보수정 의식은 족장의 주관 아래 제사보다 더 성대하게 거행된다. 족보수정에 필요한 비용은 일족내의 집안들끼리 분담하거나 일족의 공동재산으로 부담하기도 하고, 혹은 일족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불하기도 한다. 족보수정을 마칠 때에도 조상에게 이를 알리는 의식을 거행하며, 완성된 족보는 각자 나눠서 보관한다.

족보는 위진남북조시대부터 청말까지 매우 성행하였다. 족보는 몇 십 대, 혹은 몇 백 대에 이르는 구성원들의 혈연관계 및 혼인, 촌수의 고하 등을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혈연관계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고, 족장이 일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기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가족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름만으로도 가족 내의 항렬을 알 수 있도록 일부 집안에서는 항렬을 표시하는 “돌림자(字)”를 제정하여 구성원들이 이름을 지을 때 사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자의 후손들은 처음에 서른 개의 “돌림자”를 정하여 청나라 건륭황제의 흠정(欽定)을 받기도 했다. 서른 개의 “돌림자”는 다음과 같다.

希言公彥承, 宏聞貞尙衍,  
興毓傳繼廣, 昭憲慶繁祥,  
令德維垂佑, 欽紹念顯揚.

전국의 공(孔)씨들은 이름을 지을 때 모두 이를 사용했다. 1920년 공자의 제76대손 콩링이(孔令貽)는 20개를 추가했다.

建道郭安定, 樊修肇益常,  
裕文煥景瑞, 永錫世緒昌.

이처럼 “창(昌)”자를 사용하는 항렬은 공자의 제105대손이 된다. 맹자, 증자의 후손들도 공자 집안에서 선정한 돌림자를 사용하였다. 이 세 성씨의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 족보에 표시된 자기 항렬의 돌림자를 이름의 중간에 놓는다. 한 예를 들면 “공령이”의 ‘령(令)’은 돌림이며 족보를 보면 그가 “공양x”에 비해 한 항렬이 낮고 “공덕x”보다 한 항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관습은 지금까지 이어져 많은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다.

송대 구양수(歐陽修)의 구양씨 족보, 소순(蘇洵)과 소식(蘇軾) 부자의 소씨 족보 등 일부 명문대가의 족보는 사회에 널리 알려져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현재 우리가 고대 족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있다.

종사(宗祠)는 예법제도에 관련된 건물이며, 사당(祠堂)이라고도 한다 (이하 사당). 이것은 종족을 잘 받들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다.

사당은 가사(家祠)와 가묘에서 발전된 것이다. 고대에는 선비[士] 이상만 가묘를 세울 수 있었고, 가묘는 가정을 단위로 하여 세워졌는데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주택과 연결된 건물이었다. 일반 가정에서는 집안에 위패를 모셔두는 제사를 만들어 조상의 제사를 모셨고 가족 사당을 짓지는 않았다. 남송부터 명초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가사(家祠)였으며, 종족을 단위로 하여 세우는 사당은 원(元)대부터 시작되었다. 명(明) 세종 때 와서야 민간에서도 사당 건립이 허락되었다. 그 후부터 도시와 농촌에서도 사당이 널리 세워졌다. 그 규모는 비록 크지 않지만,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며, 특히 귀족 집안의 사당은 웅장한 기백을 자랑했다. 광주(廣州)의 진(陳)씨 사당은 오늘 날 볼 수 있는 사당 중 가장 뛰어난 사당 중 하나이며, 설계와 장식이 상당한 수준이 이르렀다.

사당은 가족의 상징이므로 사당을 세울 때는 온 가족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또한 사당의 규모는 한 가족의 정치적 지위와 경제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광주의 진씨 사당을 보면 한 눈에 진씨 가족이 당시 누렸던 지위와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다.

사당에서 거행하는 제사의식은 매우 성대하다. 참가자들은 의관을 단정히 해야

하고, 참배의식 또한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다. 제를 지낼 때는 지위가 높은 사람부터 앞에 선다. 족장은 제사를 주관하고, 가족 중 연배가 높은 이들이 제를 모시고, 나머지는 서열에 따라 정렬한다. 제사를 진행할 때는 엄숙하고 단정해야 하며, 마치 조상을 옆에서 모시는 것처럼 장난을 하거나 웃어도 안 되고 흐트러져서도 안 된다. 태도가 불손하고 마음대로 자리를 뜨거나 기침이나 하품을 하는 등의 실례되는 행동을 하면 가규의 처벌을 받았다. 사대부 집안의 제사 의식은 매우 성대하였고, 각종 절차마다 집사가 진행을 책임지며, 음악도 연주한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커다란 응집력을 형성하여 가족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사당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목적 외에도 족장이 종족의 사무를 처리하고 족규를 집행하고 가족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가족의 혼인, 관례, 장례 등도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 八. 가정과 가족관념

가정은 사람들의 기본 생활단위이다. 누구나 가정에서 나고 자라며, 가정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중국 봉건시대에는 성인이 되어도 가정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일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가족 묘지에 묻혔다. 한 마디로 평생 가정을 떠나지 않았다. 사상, 감정, 미래, 운명 등 개인의 일체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얽혀 있어 가정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 가정의 지위, 이익, 명성 등 모든 것은 개인의 이해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았다. 이로써 중국인의 가정 관념이 더욱 깊어졌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다든가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중국인들에게 커다란 불행이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고향 밖에서 가정을 꾸미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고향을 등져야 할 때는 모두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으니, “고향 땅은 떠나기가 어렵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집을 떠난 지 몇 년이 지나도 누구든 고향 생각에 괴로울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다. 낙엽이 지면 뿌리로 돌아가듯이 죽은 후에는 가

족 묘지에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것이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바람이며 이를 이루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되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였다.

봉건시대에 가족은 가정과도 같았기 때문에 누구도 가족을 떠날 수 없었다. 가정의 일원은 또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 가족과 운명을 같이 했다. 봉건국가에서도 가정과 가족이 개인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이용해 개개인을 통제하였다. 가족 중 한 명이 큰 공을 세우면 전 가족이 포상을 받았고,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전 가족을 처벌받는 등 개인과 가족을 단단히 묶어 놓았다. 따라서 개인은 가족의 이익과 명성에 해가 되는 일은 감히 저지를 수 없었고, 오로지 가족과 조상의 명예를 빛내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나 장례, 출산, 생일잔치와 같은 큰일을 치르게 되면 모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다. 뿌리 깊은 가족 관념은 때때로 사람들의 시비 관념을 모호 하게 한다. 과거에 흔히 발생하는 일 중에 두 집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온 가족이 나서서 누가 옳고 그른가는 무시한 채 무조건 자기 가족 편만 들어서 두 가족 간에 참혹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는 가족주의가 물고 온 하나의 폐단이다.

개인에 대한 가정과 가족의 구속력이 클수록 가정과 가족에 대한 개인의 의존도가 커지고 독립심은 약해진다. 일단 가정을 떠나게 되면 누구나 안정감과 방패를 잃어버리므로 심적으로 심한 부담감에 시달리며 “집에서는 하루하루가 편하지만 집을 나서면 매 순간이 힘들다”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익숙한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독립심과 자주정신이 강하고 가정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천하를 집으로 여기는 서양인들에게는 가정을 떠나는 일이 그다지 힘들고 두려운 일이 아니다. 중국과 서양의 이러한 차이는 가정 관념이 강하고 약한 차이에 따른 것이다.

## 九. 현대 가정

1949년 신 중국 수립 이후, 중국은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 각 영역에 불어닥친 커다란 변화는 과거 중국의 봉건 가정과 가족 제도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일종의 사회 조직으로서의 가족 제도는 빠르게 무너졌고, 가정이 사회 구성 요소

으로서 존재하기는 했으나 가정의 여러 방면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공유제의 기초 위에 가정 경제가 세워지고 가정에서 구성원끼리의 관계는 점차 평등해졌으며, 가정생활은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일부 자영업 가정만이 가정의 물질 생산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가족계획 제도의 시행에 따라 가정의 구성원 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해 상술한 내용의 변화는 농촌과 도시의 가정에서 다르게 나타났고, 새로운 차이도 생겨났다. 둘을 비교했을 때 도시 가정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분위기가 훨씬 짙은 반면, 농촌의 가정에는 봉건가정의 구습이 다소 많이 남아 있다. 물론, 도시 농촌에 관계없이 각 가정의 변화 속도도 불균등 하다. 전혀 새로운 현대적인 가정이 있는가 하면 봉건적 색채가 농후한 가정이 있으며, 후자는 주로 외지고 낙후된 산악지역에 있다. 현대 가정의 주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 1. 가정기능이 생활형으로 바뀌다.

최근 10년,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가정도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었다.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가정을 단위로 집단 경제조직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한 토지에서 온 가족이 노동생산에 종사한다. 생산도구는 기계화 혹은 반기계화가 되었고, 경작 방법도 과학화 되어 경제효율과 가정의 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TV, 세탁기, 녹음기, 라디오 및 신문, 잡지 등이 많은 가정에 보급되었고, 노동 후에 여가가 생기면 사람들은 오락 활동을 즐겼다. 가정생활 방식은 봉건시대의 단순한 생산 방식을 벗어났으며, 생산에서 생활형으로 변화했다.

도시에서는 소수 자영업 집안 외에 대다수 가정들은 생산을 담당하지 않는 대신 온 식구의 생활을 책임졌다. 가정은 식구들의 생활, 오락, 학습의 장소가 되었고, 완전히 생활형 가정으로 변모했다. 우아하고 편안한 가정환경과 즐겁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돕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많은 이들의 공통된 소망이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것에 만족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영양가 있는 음식, 세련된 옷, 다양한 오락생활이 사람들의 목표가 되는 시대다.

자녀 출산에서는 아들을 선호하고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점차 약해지고,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한 자녀만 낳자는 새로운 생각이 널리 퍼져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한 자녀만 낳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자녀를 원하지 않는 가정도 생겨났다. 농촌에서는 봉건적인 관념이 아직 남아 있어 남아가 여아보다 체력이 강하고, 부모가 늙으면 아들이 봉양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한 자녀에 만족하지 않고 둘, 셋을 낳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넷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도 간혹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도농 출산 상황을 보면 각 가정의 자녀 출산은 봉건시대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현대 가정의 출산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2. 가정구조의 소형화

현대에 와서는 봉건시대처럼 몇 대가 함께 살던 대가족은 2,3 대 정도가 함께 사는 중소형 가정으로 바뀌었다.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쓰촨(四川) 농촌 가정의 반 이상이 식구 수가 2~4명 정도인 부부 가정, 혹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대 가정이었다. 도시 가정은 농촌보다 더 작은 구조로, 구성원이 3~4명이 2대 가정이 대부분이고, 부부 두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과 3~4식구가 함께 사는 3대가정도 간혹 보인다. 그 밖에 평균 가정 구성원수가 크게 낮아졌다. 1982년 조사를 보면, 농촌 가정은 평균 4.75명, 도시 가정은 평균 3.95명이었다.

## 3. 가정구성원간의 권리 의무 평등화

신 중국 수립 이후 사회제도와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가부장주의와 남존여비 사상 등 봉건시대의 전통적이고 낡은 관념이 모두 부정되었다. 이를 대신한 것은 가족 구성원 간의 남녀평등, 부부간의 평등,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평등 및 상호 존중 등 관념이고, 이로써 권리와 의무의 평등도 생겨났다. 물론 중국의 가부장주의와 남존여비 사상은 수천 년 간 지속되어 온 것이므로 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도시보다는 농촌에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인을 “모시는” 남편, 자식에게 “효도하는” 부모,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는 시어머니 등 새로운 차별현상과 어른 공양을 꺼리는 등

현상도 생겨났다. 그러나 잔존하는 봉건가정의 전통 관념이든 새롭게 나타난 권리 의무의 불평등이든 모두 국가 법률의 구속과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며, 이로써 가정 관계는 법과 사회도덕 규범의 기준에 맞춰질 것이다.

#### 4. 가산 계승방법의 다양화

가산의 계승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가정의 도덕관념을 반영한다. 봉건가정의 가산 상속법은 어른과 아이, 남녀, 적자와 서자의 불평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도덕관념은 변화하는 중이며 가산의 상속방법도 다양해졌다. 농촌에서는 봉건적인 사상이 많이 남아 있어서 몇몇 남자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여성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 도시에서는 대부분 자녀가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는다. 이밖에도 재산을 국가와 단체, 기관에 기증하는 새로운 풍조도 생겨났다. 자신이 다년 간 소장해온 귀한 서적을 자신의 학교와 고향 도서관에 기부한 교수, 후학 양성을 위해 자신의 원고비로 기금을 마련한 과학자,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이들이 바로 좋은 예이다. 재산을 분배할 때에는 방식이 어떻든 가족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결정하거나 선친의 유언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5. 가정교육의 도농 양극화

최근 10년 간 도시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은 3분의 1에 달했으며, 자녀가 정신노동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가정도 75%나 되었다. 부모의 희망은 가정교육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대부분의 가정이 자녀에게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3, 4세 때부터 피아노, 회화, 서예, 외국어, 글자 익히기, 고시(古詩) 외우기 등을 시켰다. 반면 농촌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일찌감치 돈을 벌기를 바라며, 학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취학 연령이 되어도 학교를 보내지 않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다. 도시와 농촌 간 교육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도 사상과 목적은 같다. 도시의 경우, 자식이 성공하여 집안을 빛내야 한다는 전통 사상의 영향을 받아, 비록 처음에는 자녀의 장

래를 위한 계획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가정과 부모의 명예와 이익을 바라는 부분이 더 크다. 농촌의 경우, “자녀는 부모의 사유재산”이라는 봉건적 관념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녀의 자유를 빼앗는데, 그 목적은 역시 가정과 부모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현대 가정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관념이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한 결과이며 또한 잔존하는 봉건시대의 낡은 관념이 또 다른 형식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중국의 봉건사회가 매우 오랫동안 이어져 왔으며, 유교 사상의 영향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봉건가정의 관념과 습성이 사람들의 생각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사회 제도와 법률에서 사람 사이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가정의 낡은 관념과 습관이 한 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다. 가족제도 역시 이와 같다. 조사를 통해 본 결과, 최근에 봉건 가족제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난(湖南)성 중남부의 일부 농촌에는 일족의 장을 선출하고 족규를 정하고 족보를 제정하고 사당을 설립하는 등 사라진 지 40여년이 되는 가족제도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한 족규의 규정을 보면 가족 내에서 절도, 폭행, 강간 등의 강력 사건과 친족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일률적으로 족장에 의해 처벌이 가해진다고 한다. 또한 가산은 남자에게만 계승되고 결혼도 족장이 동의를 해야 한다. 이를 보면 구시대의 가족, 가정 관념과 습성이 일부지역과 일부가정에 강하게 남아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현대 가정의 경향을 볼 때, 조설근(曹雪芹)의 《홍루몽》에 등장하는 중국의 봉건가정, 빠진(巴金)이 쓴 《집》에 등장하는 봉건가정에도 결국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오늘날 서양의 가정과도 크게 다르다. 중국의 현대 가정은 전통적인 중국의 미덕과 새로운 시대의 바람직한 풍조를 함께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중국 현대 가정이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안정정인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 논문 초록

본 번역논문의 원저 《中國風俗概觀》은 1994년 양춘티엔(楊存田) 교수가 집필하고 북경대학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다. 또한 이 책은 중급이상의 중국어 실력을 갖춘 외국인과 유학생을 위해 편집된 교재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외국인과 세계각지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끼게 되는 중국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천여 년 전부터 이 책이 출판된 1990년대 초까지의 풍속을 시대별 상황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과거 천여 년 동안 한·중 양국의 수많은 교류 속에서 양국의 풍속 습관이 상당히 가까워 졌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 “十里不同風, 百里不同俗” 이란 말처럼 이 책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국토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 각 지역 마다 서로 다른 풍속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中國風俗概觀》중 제8장 혼인편과 제9장 가정가족편을 번역한 것이다.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혼인편에서는 봉건시대의 낡은 풍습부터 현대의 새로운 풍속까지 다양한 혼인풍속을 소개하였고, 상당부분은 과거 우리의 풍속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다양한 혼인형식과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및 방법, 지금은 사라졌지만 휴처(休妻)와 이혼, 재혼과 재가 및 과거 반드시 필요했던 중매인의 역할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정가족편 역시 과거 한국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가정의 기능이나 구조, 봉건가례 및 가정교육이나 가산(家産), 가정과 가족의 관념, 족장(族長)과 족규(族規), 족보와 종사(宗祠), 현대 가정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일부풍습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두 나라의 풍습과 습관 등이 많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특별하게 느껴지는 어려움은 없었다. 물론 가정 가족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정이나 가족 개념이 지금과는 많은 부분이 다르고, 애매모호한 개념 때문에 단어 선택에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다.

다만 원저는 1990년대에 초판이 출판된 책이라서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일어난 혼인관이나 가정 가족의 변화, 새로운 개념 등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였던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